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2014년 이해관계자보고서

좋은사람들이 꾸꾸는 세상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이해관계자보고서 소개

이해관계자란 무엇인가요?

조직의 활동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주고 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는 새누리좋은사람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보고서란 무엇인가요?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단체와 서로 관심과 영향을 주고 받는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발간하는 보고서입니다.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단체가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활동과 그 성과 그리고 그러한 활동들의 개선점이나 향후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발간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합니다. 내부 보고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단체에서 정한 정보를 공유하는 기존의 보고서 형식보다는, 단체의 구체적인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들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게 소통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보고서에는 수입 및 지출 중심의 재무적인 정보 뿐 아니라 단체의 사업과 운영 및 그 성과와 영향에 관한 비재무적인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단체에 대해 겪었던 경험과 단체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의견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 보고 범위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금번 이해관계자 보고서에는 2014년 1년 간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사업 활동에 기반한 주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첫 이해관계자 보고서이고 백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므로, 각 사업의 시작 연도부터 그 간 재단이 수행해 온 주요 사업의 취지 및 현재 상황을 함께 보고합니다.

- 보고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격 년 마다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어디에 공개하나요?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웹사이트(www.nwnp.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에 관한 문의사항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이해관계자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나 의견을 환영합니다.
보고서에 대한 의견은 우편, 이메일,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 서울 용산구 백범로 341 리첸시아 용산 A동 235호

전화 / 02-394-0055

팩스 / 02-394-0015

홈페이지 / www.nwnp.kr

이메일 / nwnp@nwnp.kr

페이스북 / www.facebook.com/nwnpkr

좋은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모든 이들이
바로 '좋은사람들'입니다.

좋은사람들의 작은 나눔 들이 모여
은 누리가 좀 더 행복하고
평평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은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위해
'새누리좋은사람들' 이 있습니다.



Introduction



재단법인 새누리 좋은 사람들은

1997년부터 “사랑의 인술로 동족과 온 누리에 새 생명과 새 희망을”이라는 기치아래 기독교 박애정신과 인도주의, 민족애에 기초하여 대북지원, 해외구호, 국내복지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는 통일부등록 NGO단체입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낙후지역에 대한 구호활동 및 개발지원 등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Philosophy · Value



Vision

비전

우리 누리가 새 누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 섬기는 좋은 사람들

Mission

사명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돕고 힘써 봉사한다.

Value

핵심가치

정직 : 모든 일에 정직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행한다.

겸손 : 겸손한 자세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한다.

성실 : 성실함으로 돕고 섬기는 일을 힘써 행한다.

Principles

행동원칙

후원자, 봉사자, 수혜자 각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책임을 맡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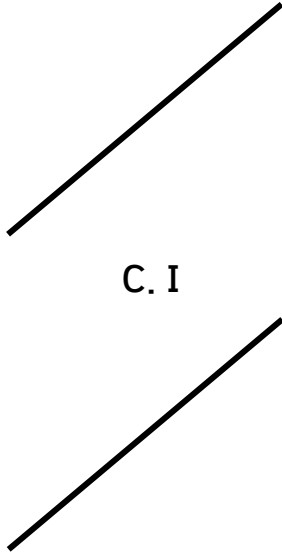
상호승리 : 지원과 협력관계에서 일방적인 수혜가 아닌 상호승리를 추구합니다.

자원활용 : 기존 자원을 최대한 순환될 수 있도록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입니다.

개혁자정신 : 타인의 터 위에 집을 세우기보다 새로운 곳을 개척합니다.

먼 시선 :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100년, 300년 후의 먼 미래를 내다 봅니다.





C. I

C. I Intro

허그[Hug]

허그는 '얼싸안는다' 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익숙하지 않지만,

그들의 아픔과 눈물을 가슴으로 품는다는 것은

그 따뜻함을 온몸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느끼게 합니다.

한번의 따뜻한 포옹은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그 아픔을 녹아 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아프고 상처받은 자들을 가슴으로 품고 섬김으로 따뜻한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걷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사람이 포옹하고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두 얼굴을 합쳐서 **하트**를 만들었습니다.



(재)새누리좋은사람들이 걸어온 길



2006

- (사)장미회 내 '새누리좋은사람들' 설립/대북지원사업 시행
- 서울시청과 대북인도지원 협약 체결(조선중앙연구소사업)
- 통일부 대북사업자 지정승인
- CTS-TV — “변치 않는 약속-치유” (12월)



2007

- 조선족 청소년을 위한 '한길장학사업' (2007 ~ 진행중)
- 북측 환자의 개안 수술 실시



2008

- 골든 트라이앵글 진료소 운영
- 북한 소아간질환아 지원사업 진행 (사랑의 열매)
- 북중접경지역 '한길 역사탐방' (2008 ~ 진행중)
- MBC 특집다큐 — “평양의대 개안수술 5일간의 보고” 방영 (2월)



2009

- 남한 백내장 수술지원 (무안, 함평의 불우한 노인 대상)



2012

- 한국해비타트와 대북인도적지원사업 협약식
- 북한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 북한 어린이 돕기 바자회
- 필리핀 빈민아동 수술지원
- 타지키스탄 의료지원사업 (2012 -2013)
- and more
- CBS-TV — 광복절 “길에서 빛을 찾다” (12월)



2011

- 박종철 부이사장 민족화해상 수상
- 북한 황해북도 강남군 모니터링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시)
- 필리핀 까인따 지역 진료소 및 여자기숙사 지원 (KOICA)
- And more



2013

- 사무실 용산구 백범로로 이전
- 캄보디아 교육사업 (KOICA)
- 캄보디아 의료사업 (경기도)
- 필리핀 태풍 피해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 And more



2010

- 통일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허가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단체
- 신의주 수재민 밀가루 500톤 지원
- And more
- CBS-TV — “복음의 발자취” (9월)



2014

- 조선족 청소년 교육, 의료지원 및 역사문화교류사업 (안전행정부)
- 필리핀 의료지원 (신한은행)
- 필리핀 콜도바군 지역조사 (KCOC)
- 국내 취약계층 지원
- And more



북한 혜산 땅 건너편에
우뚝 솟은 장백교회에서

Contents

01



지속가능성 12

좋은사람들, 더 멀리 바라보다.

1. 대표메시지
2. 이사회
3. 조직도
4. 새누리좋은사람들과 이해관계자
5. 새누리좋은사람들과 지속가능성 핵심이슈
6. 재정투명성 노력

02



사업보고 30

좋은사람들, 세상을 향하다.

1. 대북사업
2. 중국사업
3. 해외사업
4. 국내사업과 활동

03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94

좋은사람들, 함께 걷다.

1. 이해관계자가 바라보는 새누리좋은사람들
2. 이해관계자 소통

04



부록 128

좋은사람들, 세상에 말하다.

1. 언론보도
2. 2014 재무현황
3.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
4. 나눔 플러스 • 독자설문지



좋은 사람들,
더 멀리 바라보다.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란? 조직이나 개별 활동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는 정도

1. 대표 메시지
2. 이사회
3. 조직도
4. 새누리좋은사람들과 이해관계자
5.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지속가능성 핵심이슈
6. 재정투명성 노력

1. 대표 메시지



(재)새누리좋은사람들 이사장 이성희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언제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사랑의
인술로 동족과 온 누리에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전한다’는 정신으로 북한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7년부터 대북
인도적지원사업을 해왔습니다. 2006
년부터는 장미회에서 활동을 전개하였고,
2010년에는 통일부 등록 재단법인으로서
발전해왔습니다.

동일로 새로운 누리가 되는데 힘쓰겠다는
비전을 상징하는 ‘새 누리’와 좋은 이웃이
되겠다는 미션을 모아
‘새누리좋은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끄시지 않으신 불을 우리가
끌 수 없듯이 마음으로 시작한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이 길에서 언제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성희

2. 이사회

이사회와 활동 현황

이사회는 새누리좋은사람들 의결기구로, 구성원 모두가 동등한 의사결정권한을 갖습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 시 성립하며,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실무자의 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열린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실무자들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의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운영위원회로 구분되며, 정기적으로 꾸준히 개최되었습니다. 많은 구성원들이 특정한 날 특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 쉽지 않지만 힘써 모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기이사회

활동현황	
총회 일자	2014년 2월 25일
안건	임원 취임 등 변경의 건 2014년 예산(안)승인 201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 기타현황

이사회	
개최 횟수	3년평균 4회
평균 참석률	3년평균 80% 이상
심의 안건 수	3년 평균 5건

● 구성원 소개



이성희 이사장
연동교회 담임목사

박종철 부이사장
사단법인
로즈클럽인터네셔널 회장
박종철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엄상현 부이사장
수동교회 담임목사

조재호 이사
고척교회 담임목사

이상규 이사
이상규회계사무소 대표

김영혜 이사
새누리좋은사람들
여성위원장

이락원 이사
서대전중앙교회 원로목사

이중빈 이사
광주벨렐교회 담임목사

김형태 이사
김형태 치과의원 원장

유인영 이사
호성교회 목사

강희철 이사
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의사



조환기 이사
전 서울예고 교목

이중삼 이사
대덕교회 담임목사

조광휘 이사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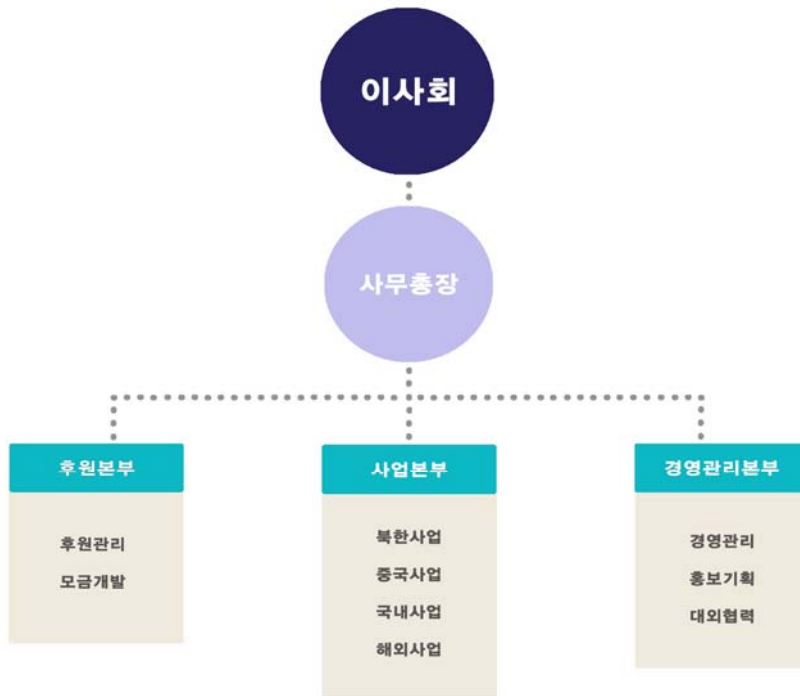
송준호 이사
명지교회 목사

김성표 이사
전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총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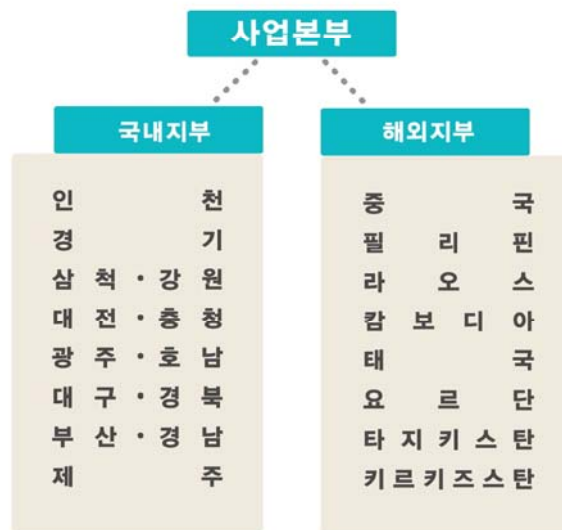
오현숙 신임이사
한서대학교 교수

이천화 감사
가립회계법인 회계사

3. 조직도



이사회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1인, 부이사장 2인, 이사 5인 이상 25인 이내(이사장, 부이사장 포함), 감사 2인 이하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사회는 임원변경의 건, 예산(안) 및 결산 승인, 사업계획(안) 승인 등 재단의 모든 방향과 정책을 결정 및 심의합니다. 현재 연동교회 담임목사이신 이사회 목사님이 이사장을 맡고 있으며, 부이사장은 박종철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과 엄상현 수동교회 담임목사님 등 2인입니다.
사무국	(재)세누리좋은사람들의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 이하 후원본부, 사업본부, 경영관리본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새누리좋은사람들과 이해관계자

사업과 가치의 흐름 소개

새누리좋은사람들이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을 이행하는 다양한 활동들은 크게 계획(Planning), 운영(Operation), 사업 이행(Implementation)의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계획단계에서는 모금을 통한 자원 마련, 그리고 사업을 기획하거나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인적, 물적, 관계적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단계에는 재단의 실제적인 운영 즉, 재정 및 인사 관리, 후원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소통, 재단과 사업의 홍보와 같은 활동들이 포함됩니다. 재단에서 각각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되는 운영, 관리 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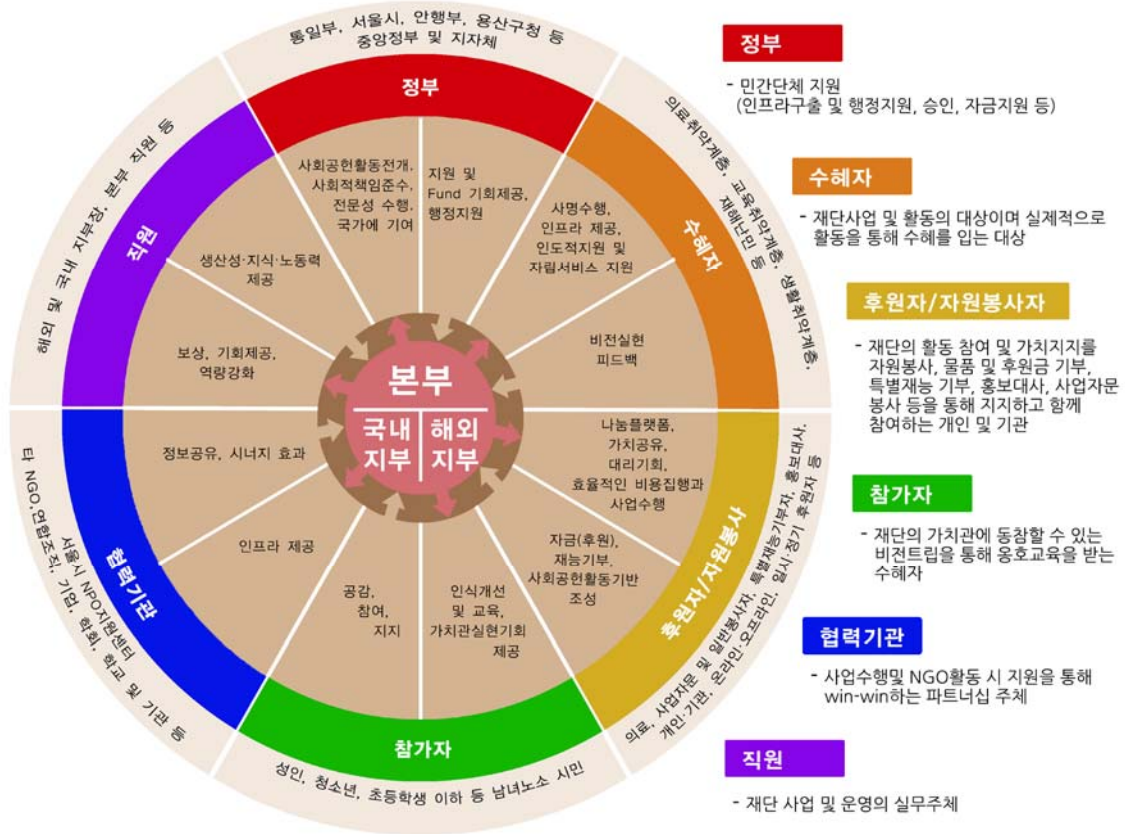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사업이행단계는 각각의 사업들이 잘 이행되고 목표한 대로 성과가 나타나는 일련의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계획 단계에서 투입된 여러 인적, 물적 자원들이 운영 단계에서의 지원을 바탕으로 이행 단계에서는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추진됨으로써 실제 수혜자에게 도움으로 이어지고 의도한 결실을 맺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사업을 통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중요한 역할과 도움을 통해 많은 사업들에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및 커뮤니케이션 채널

새누리좋은사람들을 중심으로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모아보고 상호간의 관계를 파악한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여러 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각 이해관계자와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구분	커뮤니케이션 채널	공통 커뮤니케이션
후원자	후원자 행사, 설문조사, 발간책자, 개별미팅, 채팅 문자서비스, 봉사활동	홈페이지 재단사무실 방문 뉴스레터 전화 우편 페이스북 설문지 및 의견엽서 이메일
협력기관 (파트너)	설문조사, 컨퍼런스 참석, 사업논의 및 공유 미팅, 봉사활동	
직원	직원회의, 경영현황 공유회, 인프라넷, 워크샵, 고충처리제도, 런치데이트	
자원봉사자	후원자 행사, 발간책자, 개별미팅, 채팅문자 서비스, 봉사활동	
수혜자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 참가, 소감문	
프로그램 참가자	만족도 조사, 사후 모임, 온라인 모임, 평가시스템	
정부 및 언론	상호간 설문조사, 홈페이지, 이메일, 미팅참석, 언론보도자료 및 기사	

5.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지속가능성 핵심이슈



2014년에는 새누리좋은사람들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단체로 발전하기 위한 개선사항들을 파악하고자 단체의 내외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0대 중요이슈 선정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10대 이슈	순위 (비율)
새로운 대복지원사업 및 사회사업의 발굴	1위 (16%)
단체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홍보 노력과 후원자 관리	2위 (14%)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부족한 점의 발굴 및 지속적 개선	3위 (14%)
수혜 받는 현지 주민들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	4위 (13%)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및 이사회 운영, 결과 등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의 공개	5위 (10%)
투명하고 윤리적인 단체의 재정 사용 노력과 외부 감사	6위 (8%)
단체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및 의견 반영	7위 (7%)
단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모금 활동 및 전략	8위 (7%)
사업의 수행과 지원활동을 위한 타 단체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연대/이니셔티브 참여	9위 (6%)
직원들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근로 여건의 개선	10위 (6%)

10대 중요이슈선정 결과 중 이해관계자들의 관심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지속가능성에 관한 핵심 이슈를 도출하였습니다. 도출된 핵심 이슈들 중 본 장에서는 단체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다루고, 이해관계자와 보다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니는 이슈들은 3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서 보다 상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이슈분석 결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사업과 운영에 관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top5 이슈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의 핵심 이슈들에 대해 단체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갈 지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하였습니다.

1. 새로운 대북 지원 사업 및 사회사업의 발굴을 기대합니다.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만큼 새누리좋은사람들이 앞으로 더욱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북지원사업과 다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도부터는 좀 더 다양한 사회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사업제안에 대한 의견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5년부터는 보다 강화된 통일준비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화통일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교육은 크게 국내통일교육과 북중접경지역 현장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국내통일교육은 학교 및 영리, 비영리기관 등의 구분을 뛰어넘어 다양한 기관들의 상호 협력 하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통일교육은 북중접경지역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년 비전트립을 통해 북한을 바라보며 분단과 역사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본 참가자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가 일어났고, 통일에 대한 염원도 보다 강렬해지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프로그램들을 보다 많이 발굴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
2. 새누리좋은사람들이 하는 활동들이 많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알리는 일은 그 간 새누리좋은사람들에게 다소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후원과 격려를 통해 단체의 활동과 의미를 전파해주시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함께 하고자 올 해부터는 보다 열심히 홍보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후원자 여러분의 관심에 부응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체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노력에 보다 힘을 쏟고자 합니다. 단체의 사업에 관심을 보여 주시는 분들 그리고 잠재적으로 후원의 의지를 보여 주신 분들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어 더욱 많은 시민들이 새누리좋은사람들의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사업에 공감하는 분 뿐 아니라 우리가 수행하는 여러 해외사업의 소식도 활발하게 전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모금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단이 지속적으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전트립은 단체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여러 이해관계자들(회원, 후원자, 직원, 수혜자, 자원봉사자)이 만나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됩니다. 비전트립에 참여하여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
3. 후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합니다.
-

후원자와의 소통의 장을 늘리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 친근감과 신뢰를 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후원자들이 제3자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사업과 재단의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홍보와 모금 및 후원자관리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발걸음으로 창립 9주년이 되는 2015년에 오프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
4. 사업수행 시에는 진행상황과
사업종료 시에는 효과성의 공유를
기대합니다.
-

수혜자들의 변화된 삶을 현실감 있게 전하여 여러 이해관계자분들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 상세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로,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사업을 통한 목표와 개선 방향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와 고민을 통해 구체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의 진행과정을 좀 더 자주 온라인상에 공유하여 이해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전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사업의 효과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하여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5. 투명한 의사결정구조와 절차들이
공개되기를 바랍니다.
-

의사결정은 1인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고, 정기 및 임시 이사회와 내부 직원들의 충분한 회의와 토의를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외비 사항 등이 있어 모든 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절차들은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체계와 절차의 공개 강화를 위해 이사회 운영과 결과에 대한 내용을 온라인 채널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논의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2015년도 과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 첫째,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처음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단체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소통의 기회를 열었고, 소통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나아가 내부직원과의 소통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원활하게 수렴하면서 다시 한번 소통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모임 등을 통해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 둘째, 주신 의견들을 통해 각 영역의 보완점을 발견하게 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되었습니다. 홍보와 정보공유 및 후원자 관리 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주신 의견들을 토대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셋째, 인력부족에서 오는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직적 개선을 꾀하였습니다. koica청년인턴 활용, 중소기업 청년인턴 활용, 봉사자 적극참여유도 등을 통해 보완하고 있습니다.
- 넷째,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조직의 이해관계자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였고, 그룹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다섯째, 미션과 비전, 핵심가치 등을 명확히 하여 본 단체의 목적과 지향점이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의 계획과 실행이 좀 더 명확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결론

설문조사결과는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실제 모습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의 눈에 비치는 공통된 모습을 토대로 한번 더 점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따라서 주기적 설문조사를 통해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 내용들은 단체의 운영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와 다음 번 보고서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해관계자와 보다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후원자, 수혜자, 봉사자 그리고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누리좋은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재정투명성 노력

< 재정투명성 원칙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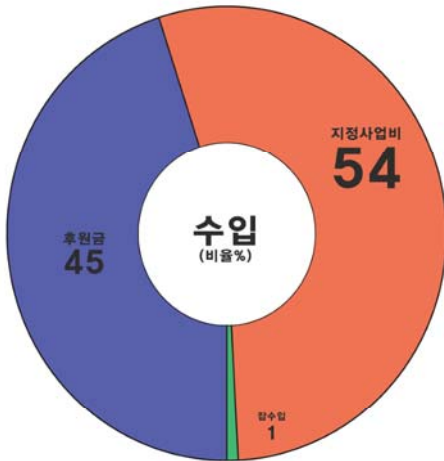
- ①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운영상황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 ② 외부 회계법인에서 정기 감사를 받으며 적정성과 건강성을 점검 받고 있습니다.
- ③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가 소집될 때마다 회계보고를 통해 투명한 사용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 ④ 일반시민과 후원자분들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홍보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하기 위해 내부에서 실천하고 있는 노력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투명성 의지. 새누리좋은사람들과 회계 담당자는 모든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 투명성을 고민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후원자분들이 뜻 깊게 모아주셨기 때문에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1원단위까지 정산하고 있습니다.
- 둘째, 회계시스템 활용. 부정이 아닌 실수로부터 오는 오류들까지도 통제하기 위하여 회계시스템(현재는 나눔과 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금액이 없어, 모든 재정에 대하여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셋째, 타당성 강화. 당연한 이야기 이지만, 영수증이 없거나 간이영수증으로 집행하는 금액 및 타당하지 않은 비용지출 등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를 강화하기 위하여 증빙과 비교견적 등을 강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넷째, 분권적 집행.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사업담당자-회계담당자-사무총장-이사회 등의 경로를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자 관리팀과 회계팀을 분리하여 행정과 재정이 분리운영 되게 하여 투명성 제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권적 시스템은 누구나 재정현황에 접근할 수 있게 하며, 특정한 1인이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섯째, 정기적 보고. 매월 후원자들의 후원내역을 정리하여 재단사업과 함께 소식지인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뉴스레터는 우편물과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번 임시 이사회나 집행위원회 회의 때마다 재단의 회계와 재정, 그리고 후원현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등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2014 새누리좋은사람들 활동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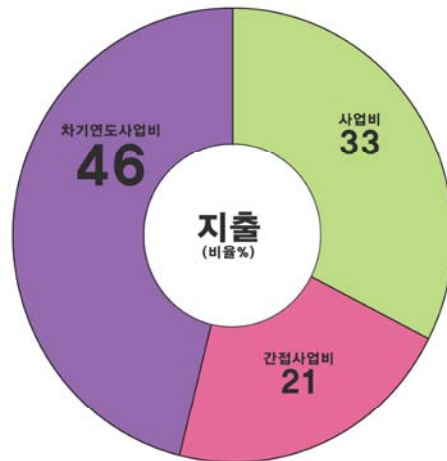
총 수입(원)
795,563,894



수입 내역


항목	금액	비율(%)
후원금	358,203,157	45
지정사업비	432,804,260	54
접수입	4,556,477	1
합계	795,563,894	100

총 지출(원)
795,563,894



지출 내역

항목	금액	비율(%)
사업비	259,698,315	33
간접사업비	170,160,869	21
차기연도사업비	365,704,710	46
합계	795,563,894	100



좋은 사람들,
세상을 향하다.



사업보고

새누리좋은사람들이 걸어온 길,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1. 대북사업
2. 중국사업
3. 해외사업
4. 국내사업과 활동

좋은사람들의 사업지역 OVERVIEW



새누리좋은사람들은 대북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에 의료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외에도 자연재해 시 긴급구호를 위해 힘써왔습니다.

국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개안수술 지원, 계절 나기 사업을 진행하였고 필리핀에서는 어린이들의 수술비지원과 도시빈민 개선사업, 태풍 하이엔 긴급구호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병원현대화사업과 지역경제 및 교육발전을 위한 데이케어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태국에서는 진료소 사업과 아동 1:1결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북사업은 중앙연구소 현대화사업, 개안수술지원 사업, 긴급구호지원사업, 영유아 지원사업, 뇌전증 치료지원사업 등 5대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농업, 임업 등으로 사업의 범위를 더욱 확장할 계획입니다.

1. 대북사업

북한의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

내 동포들을 돕겠다며, 2006년 처음 내딛던 발걸음...

어느덧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남과 북의 진정한 화해와 교류를 이루어 나아갑니다.

1. 평양중앙연구소 현대화 사업



북한 유일의 암 연구, 치료기관인 평양중앙연구소를 통한 북한 주민의 건강한 **회복과 치유**를 꿈꾸며..



○ 평양중앙연구소는 북한 내 평양에 위치하고 있는 **북한 유일의 암 연구-치료 기관**입니다. 유일한 암 치료기관이라고 하지만, 치료를 하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양중앙연구소에 장비현대화, 시설보수를 지원하여 치료 기능을 회복시킴으로써 북한 주민들이 암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평양중앙연구소 지원사업의 시작은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신뢰로 사랑의 손길을 맞잡을 때 치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2006년 12월 29일 CTS특집 다큐멘터리 “변치않는 약속-치유” 방영

<변치 않는 약속>의 의미

2004년 북측의 최초 요청 당시 현장을 직접 방문하였으나, 민간단체가 주도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나 큰 대형사업이라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누군가는 맡아야 하고, 짐을 지고 가야 하는 민족 사업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북측과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서울시와 함께 남북 교류협력사업 협약을 통해 평양중앙연구소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약속을 잊지 않고 시행한 데에 대해, 북측에서는 신뢰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의 신뢰를 확인하고, <변치 않는 약속>이라고 지칭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기간 : 2006년 4월 ~ 현재

○ 사업지역 : 평양중앙연구소

○ 사업소요예산 : 20억 4천 만원

○ 신축이 아닌 현대화

(재)새누리좋은사람들은 건물을 짓는 것보다, 기존의 병원건물을 활용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병원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은 불필요한 건설공정과 건설부대비용을 줄이고,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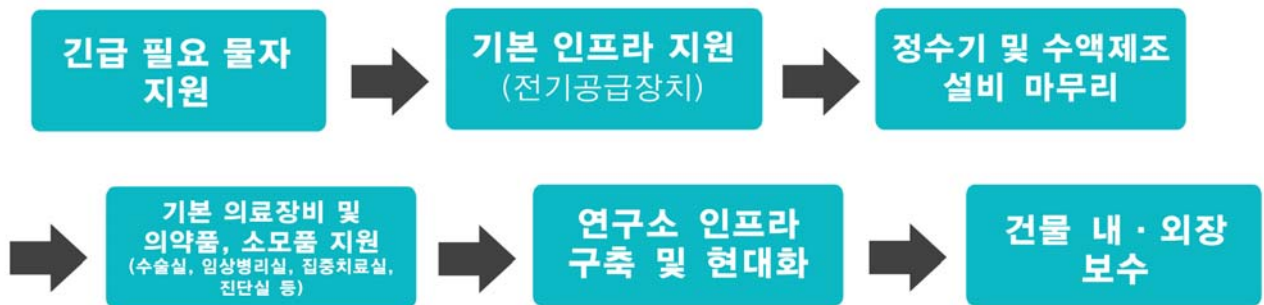
○ **북한의 열악한 전기사정**

북한의 전력사정이 워낙 열악하여 의료장비를 보내도 고장이 나거나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정전이 발생하거나 전압과 주파수 용량이 불안정해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CVCF 장비를 설치,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암치료 및 진단 장비들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 **2차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한 '깨끗한 물' 공급**

환자들이 있는 병원의 경우, 깨끗한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시 평양중앙연구소는 지하수로 소독하고 수액을 제조하고 있어 세균감염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형정수기와 함께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각 층마다 정수기를 설치 지원함으로써 깨끗한 물로 소독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 몸에 직접 투여하는 수액의 경우,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지만 1차 설비 지원 이후 대북 지원이 중단된 상태라 2차 설비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 **지원 프로세스**



○ **결과 및 기대효과**

암 질환의 특성상 진단 이후 치료도 중요하지만, 진단을 통해 암을 조기 발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원된 암 의료장비를 통하여 적절한 조기 진단이 이루어져 북한 내 암환자 발생률과 완치율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함께 진행되는 민족사업으로 민족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평양중앙연구소 지원당시, 기본적인 인프라와 의료장비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나가야 할 중앙연구소 시설지원 및 의료장비 지원, 그리고 내부수리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수액제조 설비도 지속적으로 2~3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남북관계 경색으로 1차 지원만 이루어져 미완성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뇌전증 치료 지원사업



○ 북측의 몰이해로 장애인으로 분류 및 격리하여 관리되는 뇌전증(간질)환자들이 최소한의 검진과 치료약 공급으로 발작이 완화되고 통제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꾸준한 치료약 복용을 통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뇌전증(간질)에 대한 오해와 편견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사업기간 : 2006년 12월 ~ 현재

○ 사업지역 : 평양중앙연구소 내 뇌전증(간질)보건센터

○ 사업소요예산 : 7억 원

○ “북측에는 그런 장애인과 환자들이 없습니다” - 북측에 처음 뇌전증 치료지원을 제안했을 때 북의 첫 반응

쉽지 않았던 첫 뇌전증(간질) 치료의 문.. 끈질긴 설득으로 드디어 그 문을 열고 소외되어 있던 북한의 뇌전증(간질) 환자들에게 치료약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12월 23일 뇌전증(간질)환자 치료사업에 합의

북한 내 뇌전증(간질) 환자치료는 그 동안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유일무이한 영역이었습니다. 처음 뇌전증(간질)환자 치료 지원을 제안했을 때, 북에서는 “북측에는 그런 장애인과 환자들이 없다”며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한 끝에 2006년 12월 23일, 북에서는 사실 “중증 뇌전증(간질)환자의 경우 장애인 수용소에 따로 격리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뇌전증(간질)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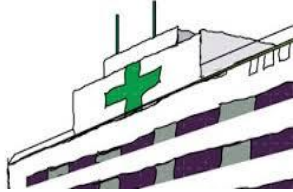
뇌기능장애로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의 1.5~1%의 높은 유병률을 가진 비교적 흔한 질병이나, 80%는 보통 항뇌전증약을 통해 발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 북한 뇌전증(간질) 현황

북한에서는 뇌전증을 전간(癲미칠 전 癲간질 간)이라고 칭하며, 높은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북한 내 뇌전증 환자들은 사회적으로 ‘잘못된 스티그마(낙인)’로 인하여 더욱 고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 뇌전증 환자의 유병률은 세계 평균보다 높은 2%의 유병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특히 전쟁스트레스와 기아로 인하여 발병률이 상승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중증 환자의 경우, 장애인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수용소에 격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북한 뇌전증(간질) 치료를 위한 활동

① ‘뇌전증(간질)보건센터’ 설립



2007년 설립된 ‘뇌전증(간질)보건센터’를 중심으로 북한 전역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3, 4차 병원으로 치료약을 보급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② 항뇌전증(간질)약 지원



많은 항뇌전증약을 지원하여 북한의 더 많은 환자들이 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뇌전증(간질) 환자의 80%는 항뇌전증약을 통해 발작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③ 소아 뇌전증(간질) 지원



소아 환자는 단순히 증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인지발달 장애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생애주기를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아 뇌전증 환자를 위한 시럽형태의 약을 지원 합니다.

○ 지원 프로세스



○ 결과 및 기대효과

북한 내 잘못된 스티그마로 인해 제대로 치료조차 받을 수 없었던 북한 뇌전증 환자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고 회복됨으로써, 뇌전증(간질)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병이라는 인식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향후 계획

그 동안 중단되어 있던 항뇌전증(간질) 의약품 지원을 조속히 재개시켜 환자들이 다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후에는 북측 의료진 기술전수와 환자 심리상담치료 등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양 외곽지역으로 지원을 확대시켜 북한 내 모든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얻고 사회적 인식 개선도 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3. 개안수술 지원사업



남북한 '평화의 빛 찾기'.

○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고통 받는 북한 안질환 환자들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평양의학대학병원에 첨단의료 장비 및 의료소모품을 지원하며, 더불어 남측 전문 의사가 방북하여 시범시술과 합동시술을 통해 기술전수를 통한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평화의 빛 찾기' 캠페인

가난과 장애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 국내의 안질환 환자들에게 개안수술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빛' 광명을 안겨주고, 남과 북의 막힌 담을 허무는 평화의 빛을 비추길 소망하며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평화의 빛 찾기'

남한에서는 수술할 돈이 없어서, 북한에서는 수술할 방법과 환경, 능력이 여의치 않아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갑니다. 국내의 이웃들과 북한의 주민들에게 개안수술을 지원하여 이들이 새롭게 빛을 볼 수 있도록 '평화의 빛 찾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 2008년 2월 21일 MBC특집다큐 '평양의대 개안수술 5일간의 보고'방영 (MBC봉사대상 수상)

<평양의대 개안수술 5일간의 보고>

"제 의사 인생에서 한번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환자일 수 있어서 더 열심히 진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개안수술을 진행하게 된 남한 안과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남과 북을 하나로 잇는 평화의 빛 찾기의 일환으로 남한의 의사들이 북한 평양의대를 방문하여 북한의 의료진들과 공동으로 개안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같은 질병은 최소한의 장비로도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아직 북한 내에서는 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서 그냥 방치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정체가 딱딱하게 굳은 환자, 거의 실명위기에 놓여있던 환자 등..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수술실 안에서는 북한과 남한 의료진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며 의료기술을 배우면서 긴장되고 열정이 넘치는 모습이 계속 펼쳐졌습니다.

○ 사업기간 : 2007년~현재

○ 사업지역 : 평양의학대학병원

○ 사업소요예산 : 7억 3천 만원

○ 평양의학대학병원 안과병동의 현황

평양의학대학병원을 돌아본 결과, 기초 의료장비들은 고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고, 고가의 안구엑스레이(OCT)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습득하지 못해 설비도 못한 채 3년 이상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사업 운영 방법 및 활동

① 안질환 치료 의료체계 구축 (의료장비 보수 및 보강)

② 남북 합동시술 시행 (남측 안과 의사들과의 꾸준한 교류와 협력을 통한 기술전수)

○ 지원 프로세스



○ 결과 및 기대효과

북한은 간단한 시술로도 치료가 되는 백내장, 녹내장 조차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의료기술의 부족으로 치료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같은 백내장이라고 하더라도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시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태가 심각한 환자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도 충분히 안질환 치료가 가능하도록 의료장비와 의약품 등을 지원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남한의 안과 의사들이 북한을 직접 방문하여 합동시술을 진행함으로써, 의료기술을 전수하여 북한 의사들이 직접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합동시술을 통하여 직접 남한 의사들의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감사 인사를 통해 남과 북의 진정한 치료와 교류의 현장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 더 높은 기술을 요하는 망막시술까지도 평양의학대학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를 지원하며 추가적으로 계속 필요로 하는 의약품 및 소모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시력장애인들이 더 이상 의료환경의 열악으로 인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하며, 진정한 남과 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4. 영·유아 지원사업



‘북한 어린이에게 영양식 보내기’

○ 영양부족으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 이유식을 지원하여 만성영양불량을 예방하고, 기본 의약품 지원함으로써 북한 내 열악한 의료환경 가운데 놓인 영·유아 어린이들의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영·유아 영양 및 의료지원을 통해 남과 북의 어린이가 모두 건강하게 자라나길 소망하며, 이후 차세대 통일한반도 미래세대를 준비합니다.

○ 사업기간 : 2011년 ~ 현재

○ 사업지역 : 황해도 강남군, 양강도 혜산시

○ 사업소요예산 : 4억 원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황해도 강남군 내 탁아소 및 유치원, 소학교 등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이유식, 250t 밀가루, 의약품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 사업추진경과

- 2011.5 사업협약

- 2011.9 1차 지원(밀가루, 의약품, 이유식 등)

- 2011.12 배분 모니터링 방북

○ 결과 및 기대효과

어린이 만성 영양불량의 경우, 시기를 놓친다면 앞으로 치료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평생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미리 영양불량과 영양부족을 예방하여 북한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기본 의약품 지원을 통해 북한 내 의약품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원합니다.

○ 향후 계획

영양결핍을 해결할 수 있는 영양식 지원과 함께 간단한 의약품을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지속적인 지원 계획에 따라 어린이들의 영양상태 개선 정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5. 긴급구호 지원사업

‘이재민들에게 일상의 삶을..’



○ 북한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큰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재해가 발생하여 수많은 이재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료품 및 구호물품을 지원하여 북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일상적인 삶으로 복귀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사업기간 : 2006년 ~ 현재

○ 사업지역 : 신의주, 강남군, 평양 등 수해지역

○ 사업소요예산 : 11억 원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북한에 집중호우 발생 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여 이들에게 꼭 필요한 식량, 의류, 의약품 등을 북한 수해지역에 전달하였습니다. 전달 시기에 맞추어 북한을 방문하여 물자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 지원현황

일시	지원 내역
2006.8.30	의료 및 구호물자 지원 (7월 큰물피해)
2007.9.5	항생제, 생수, 의류 지원 (8월초 큰물피해)
2010.10.1	신의주 밀가루 500톤 지원
2011.9.30	강남군 밀가루 및 의약품, 신발 등

○ 결과 및 기대효과

갑작스런 수해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가장 부족한 식량과 의류 등을 지원합니다. 가장 큰 피해지역을 집중 지원하여,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 향후 계획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의 연락망을 구축하여 갑작스런 수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또한 피해 주민들의 필요에 따른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년 안에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재)새누리좋은사람들
사무총장 박현석

<2011년 12월 17일~20일/ 북한 방문 목적은?>

벌써

3년째다. 항상 12월이 되면, 2011년 17일부터 20일까지의 평양체류 일정이 파노라마 처럼 기억이 되살아난다. 공항에서 전송나온 북측 안내자에게 마지막 인사차 “3년 안에는 만날 수 있으세요?” 물었더니 거침없이 “일 없습니다(문제 없습니다)”라고 들었던 대답은 공허한 희망사항이 되어 버렸다. 필자가 새천년(2000년)부터 북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수십 차례에 북한 여러 곳을 방문한 것 중, 이 방북이 평양의 마지막 방문이 될 줄은 몰랐다.

2011년 12월 17일~21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역사적인 현장인 평양에 있게 하였고, 또한 이 땅의 회복과 통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필자 개인으로는 가장 숨가쁘게 급박했던 참 의미있는 방북이 되었던, 3년 전 그 현장 이야기를 진솔하고 생생하게 나누려고 한다.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 단체는 대북협력 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의 회장단체로 추대되면서 필자는 북민협의 운영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 이명박정부 집권 초기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2009년 5월 2차 핵실험으로 남북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었다. 결국,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태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단절되었고, 인도주의 손길마저 끊어졌던 시기였다. 그러나 2011년 북한에는 예년보다 3배나 많은 폭우와 태풍으로 농경지와 도로, 가옥이 유실되면서 2만 5천명의 이재민이 발생 하였다.

‘북한 이재민을 돕자’는 인도주의적 지원은 끊이지 않았고, 이에 국제구호기구와 세계 각국의 온정의 물결이 쇄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 ‘북민협’도 밀가루 250톤과 의약품, 영양식 12만캔 그리고 운동화, 아동용 내의 등 구호물자를 준비하여 2011년 9월 30일 황해북도 강남군의 탁아소와 유치원 그리고 소학교 아동 800명에게 지원하였다. 경색된 분위기였지만, 어렵게 2011년 12월 17~20일까지 인도적 지원 사업의 모니터링 일정이 타결되었다. 따라서 ‘북민협’의 박종철 회장(본 재단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2011년 12월 18일 주일/ 만경대 고향집 방문과 봉수교회에서 예배드리다 >

지원한 단체 대표단 10명과 함께 평양을 경유하여 황해북도 강남군의 장교리와 당곡리 사업장 4곳 방문을 목적으로 방북하게 되었다.

북한방문 필수코스가 있다면 바로 '만수대 김일성 주석 동상'과 김 주석의 4대에 걸쳐 살았던 '만경대 고향집' 이다. 아침식사 후, 밖에 나가니 초겨울 날씨지만 찬바람이 불어서인지 쌀쌀하다. 만경대 고향집에 도착하니 미리 준비된 해설 선생이 반갑게 맞아 준다. 만경대 고향집은 오른쪽이 본채이고 왼쪽이 사랑채다. 이 곳은 김일성 주석의 증조부 대부터 살아왔고, 증조부는 만경대 일대의 넓은 땅을 소유한 대지주의 산당지기였다고 한다. 본채 안에 걸려있는 사진들로 안내해 주면서 4대에 걸쳐 이 집에서 생활한 얘기들을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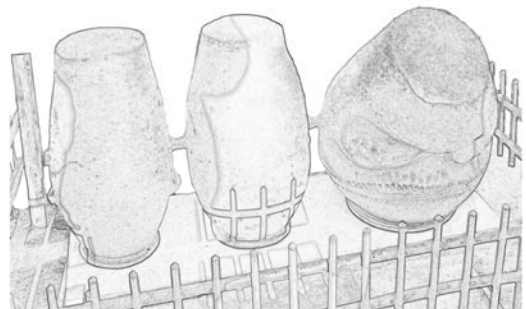
<2011년 12월 17일/ 평양 도착! “어, 이상하다”>

17일 오후3시 심양에서 평양도착, 심양공항에서 고려항공을 타려는 북한 승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 그리고 운항업무를 담당하는 항공사 직원들까지도 전혀 이상스런 것이 없던 그저 일상의 모습들이었다.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니 어두워졌고, 항상 우리를 마중나와 기다리고 있던 안내 참사들이 보이지 않았다. 여행짐을 찾고 수속이 끝난 후, 조금 기다리니 “박선생!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며 안내 참사가 혈레벌떡 뛰어오면서 인사한다. 반가웠다. 우리를 마중 나온 차는 항상 그랬듯이 현대카운티 25인승 미니버스였다. 안내 참사가 “박선생! 오늘은 시간이 늦고, 어두워져서 만수대 김일성주석 동상 헌화는 그만 두겠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수십차례 북한을 방문해도 이런 일은 없었는데, 그 때는 우리 대표단을 배려해 줌에 오히려 “고맙다”고 말했다.

사랑채엔 여러 가지 농기구들과 물레, 독 등이 진열되어 보존되어 있다. 그 가운데 명석에는 김 주석이 해방 후 이 곳 고향집을 찾았을 때 사용했다는 팻말이 붙어있다. 특히 해설 중 기억되는 것은 김 주석의 증조모가 구입한 ‘쭈그러진 독’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었다. ‘쭈그러진 독’은 “불을 너무 세게 주어서 열을 많이 받아 오므라 졌다”고 하였다. ‘짚신 한 켤레 값’으로 그 독을 구입 하면서 “독이 쭈그러졌다고 장맛이야 변하겠느냐” 라고 증조모가 했던 말을 들려 주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하였다는 것을 쭈그러진 독이 오늘까지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표단의 숙소는 보통강 호텔이었다. 첫날 방문 때는 북측에서 준비한 곳에서 환영 만찬행사가 있다. 이미 북측은 보통강 호텔안에 만찬장을 예약해 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담당 참사가 필자를 다급하게 불러서 “오늘은 사정이 있어 그러니 우리끼리 저녁식사를 하고, 나중에 귀국 전날 19일에 북측은 만찬에 참석하겠다”고 양해를 구한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없던 일들이 많이 생겨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전혀 그런 일없다고 했다. 방문 첫날의 대면 분위기는 그렇게 어색하게 보낼 수밖에 없었다.

쭈그러진 독 (2011)





추운 날씨에도 준비된 설명을 마치고 해설담당 선생과 헤어졌다. 바로 봉수교회 주일 예배시간이 되어, 평양시 만경대구역 건국동(봉수동)에 소재한 봉수교회로 향했다. 북한에는 2개의 공식적인 교회가 있는데, 외국인에 한해서 주일만 개방하는 칠골 교회와 봉수교회가 있다. 1988년 9월 북한 정권 수립 후, 최초로 세워진 교회이다. 이성봉 목사님 이후, 지금은 손효순 목사님과 김영숙 전도사 등 직분자 30여명과 성도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봉수교회는 북한에서 가장 큰 교회로, 2006년 장로회 통합측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재건축을 통해 새로운 현대식 모습으로 변해 있다. 즉 450석을 갖춘 2층 건물 본당과 부속 건물이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는 일찍부터 세계교회협의회(WCC)와의 협력 하에 북한 기독교와 대화를 시작했고, 한국교회는 1995년 '고난의 행군시기' 때부터 20년 동안 열심히 북한 돕기에 나섰다.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기독교를 主敵(주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요즈음도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각되어 총살당하고, 정치범수용소에 갇혔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서 선교 활동했던 외국인과 한국인 선교사들의 억류소식을 종종 듣는다. "봉수교회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 '북한에도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려고 준비되고 꾸며진 각본에서 연출된 교회라고들 말한다.



예배 후 북한 성도들과 대화를 청하면 항상 웃으면서 친절하게 상투적인 답변만을 해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린다. 평일에는 문이 닫혀 있고, 주일인데도 미리 요청이 없으면 방문객이 없는 줄 알고 교회를 개방하지 않는다. 또한, 봉수교회 교인은 대남공작 종사자들로 주로 구성되고, 다른 주민들보다 식량과 의복의 배급이 훨씬 좋기에 서로 하려고 줄을 댄다고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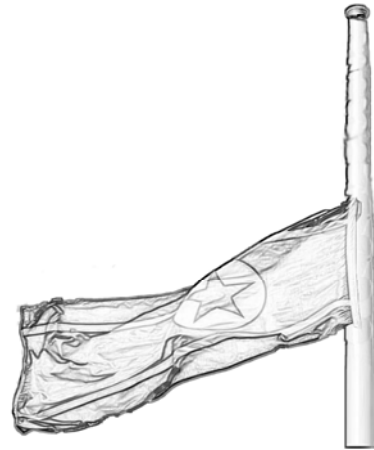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 때문에 북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주일 성수한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북측 성도들의 독창과 중창, 그리고 성가대 찬송은 성악을 하는 분들로 잘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가끔 가슴을 울리는 찬양 가사와 가락에 눈가에는 어느새 눈물이 맺혀있었다. 북한 평양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것 자체 만으로도 감격이고 감동이다. 그래서 북한 교인들과의 만남은 반가우 면서 즐겁고 흥미롭다. 또한 주일이 북한방문 일정에 포함 될 경우에는 북측에서 미리 알고 있고 우리에게 '교회 안가 냐고' 먼저 물어본다. 사전일정 협의시에도 꼭 교회예배 참석을 요구하면 지금까지 모두 협조해 주었다.

<2011년 12월 19일 급변한 상황/ 황해도 강남군
모니터링 “잘 준비했네”/ 그런데 이 같은 급박한 상황이
왜 우리 방북 때 발생했을까!!!>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소식이 공식 발표(12월 19일 12시) 되기 전까지 우리 대표단과 안내원들, 그리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모르고 있었다. 18~19일 모니터링 일정에도 북측의 협조로 전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 우리가 보낸 물자 분배상황을 현장에서 확인했고, 강남군 장교리 소학교와 탁아소 그리고 당곡리 유치원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의 서명도 받고 사진촬영도 허용해 주었다. 점심 때가 되어 일정을 마치고 평양으로 오던 중, 고려동포회관에서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12시에 안내 참사가 어디선가 찾는 전화를 받고 오더니 상황이 급반전되었다. “갑자기 일이 생겼으니 동석식사도 어렵고, 바로 우리가 머무는 보통강호텔로 가자”고 해서 “그게 무슨 일이나” “혹시 우리 대표단이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묻자 “아무 것도 묻지 말고 그냥 가자”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호텔로 오는 시간에 안내 참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침묵 속에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다. ‘이것!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구나’ 생각하면서 단체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로서는 답답한 마음이 몸을 무겁게 했다.

12시 25분에 호텔에 도착하니, 호텔 입구에 있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이 나란히 걷는 사진이 흰 천으로 가려져 있고 주변 상점 여성 접대원들이 울고 있었다. 바로 식당에 갔으나 식당 주방에서 통곡소리가 나오고 우리를 식사 접대 안내하던 종업원은 울면서 우리를 피해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식사할 분위기가 아니어서 밖으로 나오다, 중국 관광객 중에 조선족이 있어 “무슨 일이나”고 물었다. “지도자가 사망해서 애도 기간이랍니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이제 올 것이 왔구나라는 생각에 머리가 한순간 하얘졌다. 바로 호텔방으로 가서 TV를 켜니, 온통 평양에서 방송되는 외신방송마다 특집보도를 하고 있었다. 그 때 시간을 보니 대략 19일 12시 45분경으로 추정한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인지, 그 후의 상황 조치>



오후 3시 넘어 안내 책임참사가 전화로 “내려오십시오” 해서 호텔 1층 로비에 내려가니 침뚫힌 표정으로 3명 모두 울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애써 냉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대뜸 점심을 왜 안하냐? 대표단이 식사 안하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바로 모두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라고 건의한다.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니 “우리는 일없습니다. 호텔 식당에 얘기해 놓았으니 먼저 드십시오”라고 말한다. 먼저 조의와 위로를 표하고 식사를 마치니 오후 4시가 넘었다. 우리는 식사를 마친 후, 대표단 전원에게 “호텔 안이나 외부에 무단으로 다니지 말고, 특히 북측관계자 들에게 연행을 조심하고, 특별한 연락이 있을 때까지 호텔 방 안에서 대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호텔 방 안에 들어 오니, 일본 NHK-TV에서는 특집방송으로 우리 KBS-TV를 그대로 방영하면서 음성만 일본어로 방송 하고 있었다. KBS-TV 자막으로 통일부에서 평양에 체류하는 북한협 대표단 10명이 있다는 자막이 나온다. “정부와 각 단체, 그리고 가족들의 염려가 클 것 같아서 북한협 본부인 재단 사무처에 안전하게 있다는 전문통 (팩스)을 보내야겠다”고 북측에 협조를 구했다. 1시간 후 북측의 협조로 중국을 통해 “우리는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호텔에 머물고 있다. 내일 계획대로 귀국할 예정이다”는 내용을 재단 사무처로 발송했다.

아울러 북측에서도 지금은 애도기간 중이니 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은 자제해 주고, 사진 촬영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저녁 우리측 송별 만찬장에 북측 고위 관계자가 나오기로 했는데, “너무 죄송하다. 이번 만찬식은 동석하기 어렵다”고 해서 방북 역사상 환영과 송영 만찬에 우리만 식사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또한 창문을 여니 조기가 게양되었고, 곳곳마다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2011년 12월 20일/ 고려항공 평양 회항과 지연 도착>

이후로는 모든 일정이 멈추었다. 필자는 자못 객창감과 여러 가지 상념에 젖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시간에 이 땅의 회복과 한반도 통일을 놓고 기도하게 하셨다. 20일 아침 일찍 북경으로 가는 비행기가 오전 9시에 있어서 모두 새벽 5시에 기상했다. 아침 6시에 호텔에서 준비한 식사를 마치고 순안공항으로 향했다. 거리는 동절기라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평온했다. 가끔 종종 걸음으로 출근을 재촉하는 주민들도 보였고, 버스와 전차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언론에 나온 대로 길거리에 주민들이 통곡하고 애도하는 물결은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보이지 않았고, 예전의 평양 아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급 전환된 것은 북경으로 가는 고려항공이 이륙하여 간식으로 빵과 음료수를 주고, 압록강 근처에서 갑자기 회항하고 있지 않은가? 아, 이 순간은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우리를 억류하기 위해서 평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다. 비행기에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방송을 해서 승객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 건의하는 이도 없고, 안내도 없었다. 답답해서 “무슨 일이냐? 왜 비행기가 회항하느냐”고 여성 승무원에게 묻자 “지금

악성기류 때문에 순안공항으로 가서 잠깐 쉬었다 가면 일없습네다” 하고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답변하는 것이다.

순안공항에서 내려서 보니 비행기의 기체결함으로 다른 비행기로 교체한 다음 2시간 후에 북경공항에 도착했다. 결국 우리가 타려던 김포행 대신에 마지막 인천행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내리니 21일 새벽이었다. 김정일 위원장 사망시 평양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북경공항에는 40여명의 기자들, 그리고 인천공항에는 60여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한 필자 전화뿐만 아니라 방북한 단체관계자들의 전화가 불이 날 정도로 울렸다. “자고 일어나니 유명해졌다(I awoke one morning and found myself famous).”는 영국의 시인 바이런의 말처럼 역사적인 현장에 있었던 것 그 자체가 언론의 초점이 된 것이었다.



사실,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북측 관계자들에게 묻고 싶은게 있다. 아니 기회가 된다면 다음 방북 때는 꼭 확인하고 싶다. ‘처음부터 대표단 방북 첫날인 17일에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소식을 알고 있었는지?’ 또한 ‘알면서 도 대표단 방북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구나 ‘사망 소식을 접하고서도 무엇 때문에 황해도 강남군의 모니터링을 강행했는지?’ 이다. 끝으로 마지막 귀국까지 대표단의 신변안전 보호와 더 나가서 신의와 친절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싶다.

나가는 말

또 새해가 되면 한해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비전과 꿈을 확인하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光復과 남·북分斷의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작년 말부터 '통준위'와 통일부의 대화 제의에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메시지를 통해 화답을 해서 이번 설날의 이산가족 상봉을 기대해 왔다. 그러나 북측은 대화 전제 조건으로 '빠라문제'와 5.24조치 해제,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중단요구로 대화 조기 실현은 물건너 갔다. 따라서 어떤 확실한 돌파구가 없다면, 앞으로의 남·북 여정도 여전히 안개길을 걷게 될 것 같다.

2014년 초 '통일대박론' 과 '드레스덴선언'으로 한동안 잠잠했던 통일 담론에 불씨가 되었다. 그러나 말만 무성하고 실천이 없었다. 過猶不及(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 원칙에만 매달리다 보면 부러지기 쉽다. 담론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가져야 할 자세는 실재를 보고 직접 부딪혀서 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존심을 가장 중시하는 북한의 성향을 알고 있기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몰아붙이기 보다는 유연성과 융통성을 겸비하며 직접 부딪히는 '접촉'과 '대화'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접촉'과 '대화'의 작은 실천들이 확대되어 간다면 자연스럽게 남과 북의 '담론을 넘는 진정한 이해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다.

독일 분단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100여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예상을 깨트린 것은 동·서독 국민들 간의 사랑과 끊임없는 접촉,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염원이었다. 현재 남과 북의 휴전선 155마일 불신의 장벽은 굳게 세워져 있지만, 정치·경제적인 명분이나 이해관계는 언제나 그 시대와 상황의 흐름에 따라 변하게 되어 있다. 냉랭한 현 남·북 정국의 돌파구를 위해서라도, 남과 북을 잇는 교류와 접촉채널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힘써야 한다. '진정한 소통'과 '접촉을 통한

이해'가 있을 때 균형잡힌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즉 필자는 인도적 지원과 민간교류만이, '접촉'의 가장 작은 시발점이며, 남과 북의 차가운 기류 속에 온기를 불어넣는 '실질적인 실천'이라고 생각한다.

인도적 지원은 인류애와 동포애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닐까. 성경은 잠언 25:21에서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하고, 또한 로마서12:20에도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말한다. 즉 성경은 인간의 생존과 존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긍휼의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작은 실천'을 통한 '조건 없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사랑의 인솔로 동족과 온누리에 새희망과 새생명을 전하는..."이라는 기치 아래 설립되었다. "하나님께서 끄지 않는 불을 우리가 끌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아직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는 저 동토의 땅의 굶주림과 병마에 지친 북한 동포를 위해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롯이 걸어 나갈 것이다.

Photo



꿈을 품다, 세상을 담다



2. 중국사업

중국 조선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해주고, 의료봉사를 위해 밟았던 그 길이..

이제는 만주 땅을 누볐던 선조들의 역사를 보고, 통일의 비전을 나누는 이들과 함께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한길’에서 아직은 갈 수 없는 북한 땅을 바라보며, 더 큰 꿈을 그려봅니다.

한길이란, 본 재단의故장기천 운영위원장의 호이며, ‘큰길,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 한길비전트립



○ 민족의 혼이 숨쉬는 고구려와 발해 유적지, 일제 치하의 독립운동 중심지를 방문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족의 숨결이 깃든 북중 접경지역을 걸으며 민족의식과 통일염원을 고취시킵니다.

○ 사업기간 : 2008년 ~ 현재

○ 사업지역

심양-방천에 이르는 북·중 접경지역 오천리길, 하얼빈-백두산에 이르는 북간도길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이라는 사업목적이 인정을 받아 2008년 수 차례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1년에 6회 이상 비전트립이 진행되고 있으며, 역사탐방 사업과 함께 장학사업과 의료지원사업이 진행됩니다.

1) 오천리길 비전트립: 5박6일 ~ 7박8일에 걸친 심양에서 방천까지의 5천리 길은 다음의 도시들과 장소들을 거치면서 진행됩니다.

심양(심양고궁, 서탑 등)->단동(압록강철교, 위화도 등)->환인(오녀산성 등)->집안(광개토대왕비, 국내성, 장수왕릉 등)->송강하(야생화, 제자하)->장백(북한 양강도 헤산마을 조망, 장백조선족중학교 견학 등)->백두산 천지->용정(일송정, 운동주생가 등)->도문(두만강 조망, 북한 남양구 조망 등)->연길(연변대학교, 연변박물관 등)->훈춘-방천(두만강대교, 북-중-러 3국 접경지 망해각 등)

2) 북간도길 비전트립: 5박6일 ~ 7박8일에 걸친 하얼빈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북간도길, 하얼빈(안중근기념관, 731부대 등)->목단강(팔녀투강기념비 등)->해림(김좌진 장군상, 한중우의공원 등)->돈화(발해광장)->백두산 천지->영안(발해 유적지 등)->도문(두만강 조망, 북한 남양구 조망 등)->연길(연변대학교, 연변박물관 등)->훈춘-방천(두만강대교, 북-중-러 3국 접경지 망해각 등)

○ 지원현황 : 2014년 사업 기준 총 91,176,000원(보조금70,000,000원. 자부담 21,176,0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통일을 맞이할 세대에게 국내에서는 체감하기 힘든 분단의 현실을 북한 땅을 직접 바라보며 느끼게 해주고 통일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며, 옛 고구려와 발해의 영토 그리고 항일투쟁의 역사가 잠든 땅을 방문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갖게 해줍니다.

2. 한길장학사업



○ 본 재단故장기천 운영위원장의 유념사업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조선족 청소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내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비 및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간: 2007년 ~ 현재

○ 사업지역: 장백 조선족중학교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조선족 학생들 중 형편은 어렵지만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을 조선족장백중학교에서 선발합니다. 20명의 장학생들이 학비와 기숙사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2학기에 걸쳐 20,000위안을 전달합니다. 이외에도 의복과 운동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조선족 학생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합니다. 역사탐방 참가자들과 함께 식사와 백두산 등반 등을 통해 유대감과 통일의를 공유합니다.

○ 지원현황 : 2014년 기준 장학금 4,000,000원, 의복지원 2,000,0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조선족 학생들의 가정환경은 부모님의 건강악화, 경제력 부족, 이혼 및 사망등으로 인한 편부모 가정, 조손가정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가정경제부담을 느끼면서 학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선족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한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줍니다. 본 장학사업의 수혜학교인 중국장백현조선족중학교에는 이전에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은 적이 있었으나, 일시적인 지원 혹은 중단된 지원으로 인하여 현재는 유일하게 새누리좋은사람들의 한길장학사업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조선족 학생들이 한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한국과 중국,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학생들은 보통 중국내 상위 20개의 대학에 보통 진학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중국을 이어주는 인재로서 활약해주시기를 더욱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조선족 의료지원사업



○조선족 마을을 중심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의료봉사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의료 진료와 의약품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족 중 일부는 열악한 의료환경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간: 2008년 ~ 현재

○ 사업지역: 용정, 환인, 장백 등 조선족 집단 거주지역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는 병원이 거의 없고, 경제적인 여건도 어려워 매년 여름마다 찾아가 보건위생 강의와 건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및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현황 : 2014년 기준 의료진 2회 방문 (의사와 간호사로 자원봉사자 구성), 의약품 지원액 4,500,0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조선족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건강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치료 뿐만 아니라 예방에 대한 의료정보도 공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력 강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조선족 의료지원 횟수를 늘림과 동시에 지역에 상주할 수 있는 의료인의 역량강화교육 사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백에서 온 편지



매해 두차례 지원하는 장백중학교 장학금 지원사업은 본 재단의 운영이사장이었던 한길 고 장지천 목사의 유념사업으로 조선족 청소년들이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장학사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백조선중학교 고중 1학년 1반의 방창호라고 합니다. 저는 귀 장학회에서 보내주신 장학금의 혜택을 받고 있는 여러 학생 중의 한 사람입니다. 새누리장학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렇게 편지를 써드립니다. 저의 가정환경은 별로 넉넉지 못하여 학업도 겨우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도음이 가장 필요한 때 귀 장학회에서는 선뜻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 아낌없는 도움에 대비하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 장학회와 같은 단체의 존재로 우리와 같이 가난한 학생들은 학업을 중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다시 익숙한 교정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중은본연사라는 말도 있듯이 간단히 열 마디로 감사의 마음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도 부조하지만 이후부터라도 더 열심히 공부하여 각종 유용한 사랑이 되어 나와 같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돕고 후원하겠습니다. 아마 '새누리'란 단어가 역시 사랑입니다. 흑산이 넘나드는 돌지 밖에 세상을 창조한다는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흑산이 넘나드는 돌지 밖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새누리장학회 선생님들도 옥체건강하시고 만사가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쯤의 아름다운 만남을 기약하여 저는 편지를 거두겠습니다.

2013년 11월 27일 방창호 올림

안녕하십니까.

저의 이름은 백부걸입니다. 저는 곤란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모두 외지에서 일을 하고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중에 입학한 다음에 모든 비용이 다 늘어났습니다. 이리하여 부모님이 계속 나에게 학비와 생활비용을 대주는 것이 점점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런 곤경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나에게 원조의 손길을 내밀어 주셔서 지금까지 근심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후 꼭 여러분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사회에 보답하고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고마운 여러분들의 사업이 순리롭고 신체건강하며 화목한 가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년 11월 27일 백부걸 올림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김로 라고 합니다. 그 감사에 보답하고자 메일을 씁니다. 정말 감사 합니다. 장학금은 우리가 정이 경제부담도 덜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학습을 완성 하는데도 보장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몸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2013년 11월 27일 김로 올림

THIS SPACE FOR WRITING MESSAGES

POST CARD

THIS SPACE FOR ADDRESS ONLY



안녕하세요.

중국 길림성 장백조선족자치현조선족중학교 고중 3학년 2반 최란입니다. 저의 진정어린 인사를 처음으로 이렇게 생면부지의 선생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의 진정어린 인사를 받으세요. 선생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 저는 여기까지 학습생활을 순탄히 이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며 학습에 노력하여 더욱 우수한 성적을 따내는 것으로 선생님들의 사랑에 보답할 것입니다. 추운 겨울 몸 조심하시며 매일매일 즐거운 하루가 되세요.

2013년 11월 30일 장백조선족중학교 고중 3학년 2반 최란 올림

Photo



꿈을 품다, 세상을 담다



좋은사람들의 해외사업지역 OVERVIEW



3. 해외사업

비록 나라는 다르고, 얼굴 생김새가 달라도, 우리는 '한 이웃'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손을 내밀어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제 더 넓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1. 골든트라이앵글 지원사업



○ 태국, 미얀마, 라오스가 만나는 지점의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은 한때 마약재배 지역으로 수많은 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적과 경제기반이 없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골든트라이앵글지역의 산족과 골든트라이앵글로 유입되는 난민들에게 긴급구호와 무상진료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기간 : 2008.06 ~ 2008.12

○ 사업지역: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태국 지역에 진료소를 설립해 의약품 지원하고 주민들에게 무상의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 골든트라이앵글 일대에 구호봉사를 실시하여 무상으로 출장의료와 함께 의류, 식량, 의약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했습니다.

○ 지원현황 : 총 100,000,000원(보조금 50,000,000원, 자부담 50,000,000원). 태국 메사이에 진료소를 세우고 약 970명의 환자를 진료함. 그 외 주민들과 고아원 등에 학용품, 의약품, 의류1300벌, 신발 1000족, 컴퓨터 100대 및 학용품을 지원함.

○ 결과 및 기대효과

태국의 사정은 그래도 나은 편이지만, 미얀마의 경우 의료보험체계가 전무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미얀마 국민들은 고가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로부터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채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고 있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의 주민들을 구호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전염병 창궐과 질병의 확산을 방지합니다.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필리핀 도시빈민 지원사업



○ 까인따 빈민지역은 필리핀 정부의 예산부족으로 의료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가운데 방치된 의료소외지역이며, 여자 청소년들이 10대 초반에 임신을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지역에 빈민 진료소를 운영하여 의료혜택을 보급하고, 빈민 여자 청소년 기숙사를 운영해 여자 청소년들에게 교육환경과 영양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기간:** 2011.02~2012.02

○ **사업지역:**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남동부의 까인따의 깜덴 지역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무료진료소의 의료기구 구입과 운영을 지원하며 진료소가 없는 곳으로 출장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열대성 질병과 결핵에 대한 예방 및 치료와 응급환자의 수술도 실시합니다. 또, 청소년들의 보호교육 시설(기숙사)을 확장하고 운영을 지원합니다.

○ **지원현황:** 총 사업비 100,680,000원(보조금 60,000,000원 자부담 40,680,0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빈민촌의 인구증가로 지역 내 무상의료기관이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 가운데 2009년 필리핀을 강타한 '온도 이'태풍으로 중요 의료기구와 시설들이 유실되어 의료서비스 공급이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의료환경은 공공의료 보장이 부실하고 진료비가 비싼 사설병원이 상당수입니다. 따라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빈민들을 위해 의료서비스와 청소년 보호시설을 공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빈민촌의 부실한 의료 시스템을 보강하여 빈민들의 건강수준을 높였습니다. 더불어 보호교육 시설의 확장으로 빈민청소년들의 보건교육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에도 해피빈 모금을 통하여 1:1로 결연이 필요한 사연들을 소개하여 아동 인권 개선에 기여하며 기숙사 개·보수를 위하여 꾸준한 지원을 할 것입니다.

3. 필리핀 개안수술 지원사업

with **해피빈**



○ 필리핀 도시 빈민 지원 사업을 지원 하던 중, 비노와 클라리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클라리스는 7살 여자아이로 청각 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한편 비노는 갑작스런 열병으로 시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치료가 시급한 비노와 클라리스가 건강한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12.04

○ **사업지역:** 필리핀 까인따의 캄덴 지역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고막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클라리스에게는 고막재생수술을 해 청력을 회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비노는 열병으로 안구 위치가 달라져 눈의 시력도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쪽 눈의 시력을 지키기 위한 보안 기구를 지원하기로 하고, 기능을 잃은 다른 쪽 눈은 수술을 지원했습니다.

○ **지원현황:** 4,000,0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클라리스의 청각장애와 비노의 시각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수술로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게 하고 앞으로 자신감을 갖고 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존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4. 필리핀 긴급구호 지원사업



○ 지난 2013년 11월 8일 필리핀 중부를 강타한 슈퍼태풍 하이옌은 필리핀 중부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과 세부의 다안반따얀 지역에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긴급구호 및 의료 지원팀을 파견하여 이재민들에게 희망을 나누는 사업입니다.

○ 사업기간: 2013.11~2013.12

○ 사업지역: 필리핀 타클로반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2000여명의 긴급환자를 진료하고 이재민에게 급식을 배식했습니다. 현장복구를 위한 방역방제작업 등도 병행했습니다.

○ 지원현황: 총 116,662,855원(현물 95,782,855원 현금 20,880,000원). 구호 물품, 의료 진료, 급식 배급, 타클로반 지역 방역방제작업

○ 결과 및 기대효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로 막대한 인명 및 물적 피해를 입은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에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이 피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지속적인 복구와 개선을 통해 심신과 생활의 터전이 하루빨리 회복되어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두 국가간 협력을 통해 협력하는 세계시민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합니다.

5. 타지키스탄 의료지원 교육사업



○ 타지키스탄 치칼레스카시 주민들은 석회질 물로 인한 급속한 노화와 영양부족으로 인해 상당수의 주민들은 안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료 및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은 거의 전무하였으며, 단순히 시력검사를 할 수 있는 간단한 자재들만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장애환자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하여야 하나 먼저 시급한 문제와 본 재단이 잘 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여 시력장애환자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기간: 2012.09~2013.08

○ 사업지역: 타지키스탄 치칼레스카시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안질환 진료에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약품 및 안질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년간 1일 30명 이상의 안질환자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의촌 주민을 대상으로는 월 2회 100명의 안질환자를 대상으로 무의촌 이동진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후 의료 자립력 증대를 위해 현지 의료진을 대상으로 의료 교육과 세미나를 실시해 새로운 의료기술을 전수해 줍니다.

○ 지원현황: 103,005,136원

○ 결과 및 기대효과

실명의 제 1원인인 백내장 감소와 현지 의료인의 능력배양 및 지역사회 대상 보건교육을 목적으로 한 결과 실제로 현지 의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수혜자들의 삶의 질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백내장 수술을 통해 실명을 예방하여 해당지역 내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현지 의료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극단적 빈곤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습니다. (MGD1,6, Vision2020 충족)

○ 향후 계획

전반적으로 지역주민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구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료인력중 현지인을 최소 50%이상으로 구성하여 그 비중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안과 외에도 비뇨기과 같은 다른 부서들을 추가해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병원 수익을 높이고자 합니다. 향후 모든 시설과 시설운영을 현지 의료진에 넘겨 자립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6. 캄보디아 보크나을 데이케어센터

지원사업

with

KOICA
한국국제협력단



○ 캄보디아 보크나을 지역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하여 부모의 경제생활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지역복지와 경제발전에 증진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2013.01~2014.02

○ 사업지역: 캄보디아 캄퐁참주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지역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 영유아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 미취학아동 예체능체험학습 프로그램, 취학아동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또,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아이들을 키우기 힘든 여성들의 구직활동도 지원했습니다. 데이케어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교사양성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 지원현황: 총 127,600,000원(데이케어센터 운영 프로그램 80,444,700원. 현지 인건비 18,645,000원. 운영 및 행정비 21,824,100 원. 모니터링 및 평가비 6,121,200원. 홍보비 565,0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캄보디아는 출산율은 높고 소득수준은 낮았지만, 여성들은 양육의 문제로 경제활동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적절한 보육 시설과 서비스가 없어 아이를 돌보느라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지역 여성들은 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을 통해 마음놓고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전문적인 교육시스템을 통해 양육되어 교육권리를 영위하면서 잠재된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었고, 각 가정의 경제발전과 지역경제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도 더욱 많은 지역에 확산하여 작은 공간을 활용한 보육공동체가 확산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부모들이 양육비를 위한 경제활동을 충분히 하게 되었기 때문에 소득의 일정부분이 교육분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동복지 증진과 교육인권을 강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 자아실현과 인권개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 캄보디아 캄푹주 쓰띠알 마을 병원

운영지원사업

with **세계속의 경기도**



○ 캄보디아 캄푹주의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위생환경수준이 떨어지는 곳에 거주하고 있으며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말라리아나 결핵으로 5세 이하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18~20%에 이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위생환경 개선과 초기 치료가 가능한 의료장비, 의료인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 사업기간: 2013.04~2014.03

○ 사업지역: 캄보디아 캄푹주 쓰띠알 마을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첫째로 말라리아나 뎅기열 등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지원해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더불어 보건위생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기구들을 지원했습니다. 둘째로, 의료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현지 의료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며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셋째로, 의료인과 보조 및 행정을 담당할 의료봉사단을 구성하여 300여명을 진료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쳤습니다.

○ 지원현황: 총 46,504,200원(지원금 42,000,000원. 자부담 4,504,200원). 병원의료장비 지원(진단검사장비 보완 및 확충), 보건소 현지 의료진 의료교육(공급장비교육 및 의료교육), 사업지역 마을 보건 의료자원봉사

○ 결과 및 기대효과

열악한 위생환경에 방치되어 있으며 경미한 질병에도 관리와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영구적 장애, 심하게는 사망에 까지 이르는 상황을 막고, 말라리아나 결핵, 뎅기열등의 초기 치료가 가능한 질병의 사망률을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위생환경의 개선으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타클로반

긴급구조 현장 소식



필리핀 긴급구호 봉사단이 2013년 11월 29일부터 7일동안 태풍 하이엔 피해지역인 타클로반에 파견됐습니다. 대구동산병원장 손은익 박사, 박가정 의학과의원 박철성 원장, 이미녀 간호사 서울아산병원 유세원 간호사, (사)와이즈맨의 김성표, 김사현, 임금칠 총재 및 본 재단의 정영숙 홍보대사, 박현서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된 팀이 파견되었습니다. 긴급구호팀은 태풍피해지역의 구호물품 지원 및 의료봉사를 진행 했습니다. 고통과 눈물로 가득한 필리핀 타클로반에 파견되는 구호대를 통해 이 지역주민 들이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번 필리핀 긴급 구호 활동은 (사)국제와이즈맨과 함께 했습니다.



YMCA 물품전달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찾아온 주민들 모습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 세부지역 YMCA 사무실을 방문하여 구호물품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태풍피해를 크게 입었던 세부지역의 다안반따안으로 이동해 구호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피해 가정들에 구호물품을 전달했는데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구호물품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무더위에 구호활동을 하면서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물품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길거리에서 구호요청의 손길이 많았음에도 물품이 다 떨어져 도와줄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폐허가 된 이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세부지역의 난민촌을 방문해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170여명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물론, 이 한 번의 도움이 충분치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랐습니다.



필리핀 세부지역의 난민촌을 방문하여 의료봉사 활동

난민촌에서의 의료봉사를 마치고 저희 봉사단은 태풍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던 타클로반으로 출발했습니다. 의약품과 식량을 싣고 가는 차에서 바라보는 거리의 풍경은 참혹했습니다. 건물 유리창은 온통 깨져있었고 주변 도로, 가로수와 항만시설들도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게다가 전기나 수도 등의 유틸리티 시설 등이 파괴되고 식량이 부족해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도 이루어 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했던 것은 태풍으로 인해 밀려들어온 쓰레기와 태풍피해 사망자들의 시신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전염성 질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처참한 상황을 딛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피해지역의 모습



그대로 방치된 시신



급식을 받고 있는 아이들 진료를 받는 어린아이와 엄마

피해지역의 해안가를 방문하여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닭죽을 만들어 아침을 제공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아침을 드렸습니다. 잠시 숨을 돌리는데 보이는 쓰레기 더미 속의 새싹은 타클로반 사람들의 작지만 강한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의료봉사도 같이 실시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보건환경의 악화로 의료검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진료받기 위해 아침부터 길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이재민들의 눈빛을 보면 잠시도 지칠 틈이 없었습니다.



필리핀 세부지역의 난민촌을 방문하여 의료봉사 활동



방역작업 중인 차량 진료결과를 받은 어린이

마지막 날, 해안지역과 공항인근의 산호세에서 의료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역을 떠나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컨테이너 박스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진료장소가 해충들과 악취로 뒤덮여 도저히 진료를 할 수 없어 준비한 기구로 방역을 한 후에야 진료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열악한 환경이었고 부족한 장비와 시설로 기본적인 진료만 실시할 수 있었지만 주민들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며 매우 기뻐하는 얼굴을 보니 이번 의료봉사가 정말 보람된 일이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쓰레기 마을, Angela의

조금 느린 걸음마

2014년 5월부터
해피빈을 통해 시작된 모금으로,
해피빈 콩 기부자 328명과
신한은행 만원 나눔 기부를 통해
총 5,286,200원이 모아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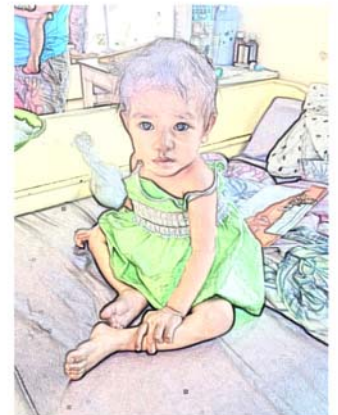


작은 아가.. Angela 쓰레기 마을에서 태어난 Angela는 생후 24개월지만,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월등히 작은 체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영양실조로 인해 혼자 서있을 수조차 없고, 지속적인 구토와 설사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Angela의 가정도 쓰레기마을의 다른 가정들과 마찬가지로 쓰레기를 주워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진단이나 치료는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예상은 안젤라의 근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보행보조기구와 영양공급을 지원해주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안젤라를 만나고 병원 진료를 받아보니, 열악한 생활환경과 심각한 영양실조로 인한 발달저하상태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안젤라가 사는 곳은 세부의 막탄섬 안에 있는 쓰레기 마을입니다. 이 쓰레기 마을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이 안젤라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젤라의 생활환경은 '최악'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극심한 가난과 부모의 무관심으로 안젤라는 집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부터 '분리'

현재의 심각한 영양실조를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열악한 생활환경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해 병원에서 집중 영양프로그램으로 치료를 받는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입원을 통한 '영양 프로그램' 치료로 웃게 된 안젤라

안젤라가 걷지 못하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진단을 받던 중, 심각한 영양실조가 결정적인 이유였고 집에서 도저히 회복을 받을 수 없는 현재 안젤라의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우리는 안젤라를 병원의 집중 영양 프로그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약 10일 정도 세부시티의 '빈센토 소토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회복되어, 이제는 얼굴이 많이 밝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니 반복되는 '악순환'

병원에서의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다시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 안젤라는 다시 흥역을 앓으며 급격하게 수척해졌습니다. 식료품과 영양제를 통해 꾸준히 영양공급을 실시하였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에 있는 가정에서는 다시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직 수술을 받기엔 버거운 '작은 몸'

안젤라와 함께 신한가족 만원나눔의 지원을 통해 치료를 받게 된 '마테오(생후 5개월)와 존(생후 8개월)'은 막상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가보니, 영양결핍과 체중미달로 현재는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한 영양공급 지원을 통해 아이들의 몸이 좀 더 튼튼해졌을 때 언젠가 수술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해 겨울이나 내년 봄에 이루어지게 될 수술을 위해서 해피빈 후원자 분들과 신한가족 분들이 계속된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 존 카를로스
왼쪽 : 마테오



모든 현장의 소식은 소통을 위해 하루가 끝날 무렵 페이스북과 이메일을 통해 공유하였습니다. 공유한 소식을 통해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통해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필리핀의 재난지역을 향한 도움의 손길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응원의 온기를 느낄 수 있어서 힘을 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힘든 여정 중에 힘을 낼 수 있게 한 응원의 목소리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봅니다.

- 태풍하이옌으로 고통 받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 새누리좋은사람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 감동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끼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평상시에 치료 받으려고 수 십 명씩 찾아와 치료 해줄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치료해주는 손길이 많아서 기쁩니다.
-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 직접 하지 못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후원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이미지 선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멀리서나마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 말뿐이고 마음만 가득한 것이 아닌 실천의 봉사과 사랑에 찬사를 보냅니다
-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몸으로 동참하기를 빌겠습니다
- 필리핀 긴급구호를 응원합니다.
- 정말 열심히 사랑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 그대들이 계셔서 행복 합니다.
- e-mail을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훨씬 더 활동이 많아지신 것 같아 기쁩니다.

Photo



꿈을 품다, 세상을 담다



4. 국내사업과 활동

나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 얼굴을 마주합니다.
더 가까이에 있어서, 더 함께하고 싶은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 국내 취약계층 계절 나기

지원사업

with **해피빈**



○ 용산구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신체 및 지적장애, 한부모 가정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각 계절에 필요한 용품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이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용품들이 부족해 식중독이나 일사병 등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으로 용산구청과 함께 사업을 진행합니다.

○ **사업기간** : 2013년 8월 26일 ~ 29일, 2014년 9월 1일 ~ 10월 31일

○ **사업지역** : 용산구 일대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2013년에는 취약가구 5가정을 선정하여 냉장고를 전달했고, 2014년에는 대상가정을 8가정으로 늘렸습니다. 나아가 2013년 사업을 통해 받은 피드백을 반영하여 좀 더 세심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냉장고, 선풍기, 전기장판, 이불, 식료품 등으로 품목을 다양화 했습니다.

○ **지원현황**: 2013년 사업비 2,039,500원. 2014년 사업비 2,331,8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냉장고, 선풍기 등의 생활필수품을 갖게 해주어 무더위나 강추위의 불편한 점을 덜고, 식중독 같은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합니다. 이들이 일정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는 용산구 일대에서 지역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또, 수혜자의 수도 점차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혜택 받는 대다수가 취약계층, 특히 장애우이거나 독거노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리적 고립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입니다.

2. 국내 취약계층 의료

(개안수술) 지원사업

with **세계 속의 경기도**



○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든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안질환 치료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07 ~ 2009년

○ 사업지역 : 전남 함평군(평화의 빛 찾기 캠페인)

○ 사업운영방법과 활동

평화의 빛 찾기 캠페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안질환에도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복지관 등의 해당 부처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백내장 수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나 구청 및 복지관 등 해당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또 언론이나 홍보책자를 통해 사업을 홍보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독거노인들의 현실을 알리고자 힘썼습니다.

○ 지원현황 : 평화의 빛 찾기 캠페인 20,000,000원.

○ 결과 및 기대효과 : 안 질환으로 인한 저 시력 문제나 시각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에게 생계유지를 포함하여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불편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3. 기타활동



< 해비타트 협약식 >



< 사랑의집 협약식 >



< 신한은행 봉사활동 >



< 북한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

① 대외협약식

○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저희의 경험과 역량을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공유하고 협력하기 위해 여러 단체들과 협약식을 맺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시너지효과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 각 활동별 설명

- 1) 한국해비타트 대북 협력 협약식: 새누리좋은사람들은 북한 주민의 주거 문제해결을 돕고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한국해비타트와의 대북 인도적지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 종량구 어린이집 대북 협력 협약식: 민간 어린이집에서 북한 어린이돕기 모금에 참여하고 어린이집 아이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함께 진행합니다. 미래세대인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가치를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 3) 머시벨 대북 협력 협약식: 빈곤층 어린이를 배고픔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머시벨과의 협약으로 북한 어린이들의 굶주림과 열악한 교육환경의 문제를 좀 더 전문성 있게 대처하고 해결하려 합니다.
- 4) 선한의료인들 협약식: 대북의료지원과 새터민 돕기 운동을 하는 선한의료인들과 새누리좋은사람들은 북한 내 의료 시설과 장비 구축과 의약품 지원, 의료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 5) 사랑의 집 보건의료 교육사업 협약식: 보건 의료분야의 남북장애인 상호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하여 공동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6) 와이즈멘과 그린닥터스 상호교류협약식: 와이즈멘과 그린닥터스는 각각 봉사와 의료분야에 강점을 가진 조직으로서, 온 인류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협력 및 상호교류에 관해 공동협력하고자 합니다.

② 평화통일교육

○ 국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그 동안의 대북사업을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통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가 가진 잘못된 북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큰 주제는 통일의 유익성과 분단으로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 대북지원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우리가 바라본

북한의 이야기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북한을 느끼면서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한 민족임을 알아갑니다. 이러한 작은 인식개선의 노력들은 미래 통일이 되었을 때, 사회갈등을 줄이고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③ 다양한 봉사활동 운영

○ 청소년들의 봉사정신함양을 위해 재단 내에서 연중수시로 봉사활동 참여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의료전문인력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소외지역과 연결해주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실제로 동행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기업차원에서 '직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과 해당기업이 함께 하여 모금활동참여나 물품지원 및 현장 체험형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④ 나눔행사 등 각종행사

○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좀 더 많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본 재단의 활동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노력들을 통해 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명에 공감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각 활동 별 설명

1) KBS 나눔 대축제 참여: 나눔문화의 확산과 NGO의 역량확대를 위해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된 행사에 참여하여 저희 단체를 알리고 북한의 실상을 전하고 체험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 북한 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개최: 송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북한 어린이들의 겨울나기를 돕고 이웃사랑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북한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3)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불우 및 장애인 돕기 바자회: 정영숙, 사미자, 여운계, 전원주, 신구 등 국내 중견 연기자들과 함께 불우한 사람들과 환자 및 장애인을 돕는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4)오렌지팩토리와 함께하는 불우 및 장애인 돕기 바자회: 오렌지팩토리의 전국 13개 점포에서 북한어린이돕기 바자회 행사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소비 문화를 확산하고 모인 수익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

⑤북민협(대북민간단체협의회) 활동

○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하는 NGO의 협의체입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대북민간단체협의회 소속 회원으로 타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와 협력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1년 2년동안 회장단체로 활동하며 민족화해상을 수상하였으며, 현재는 감사단체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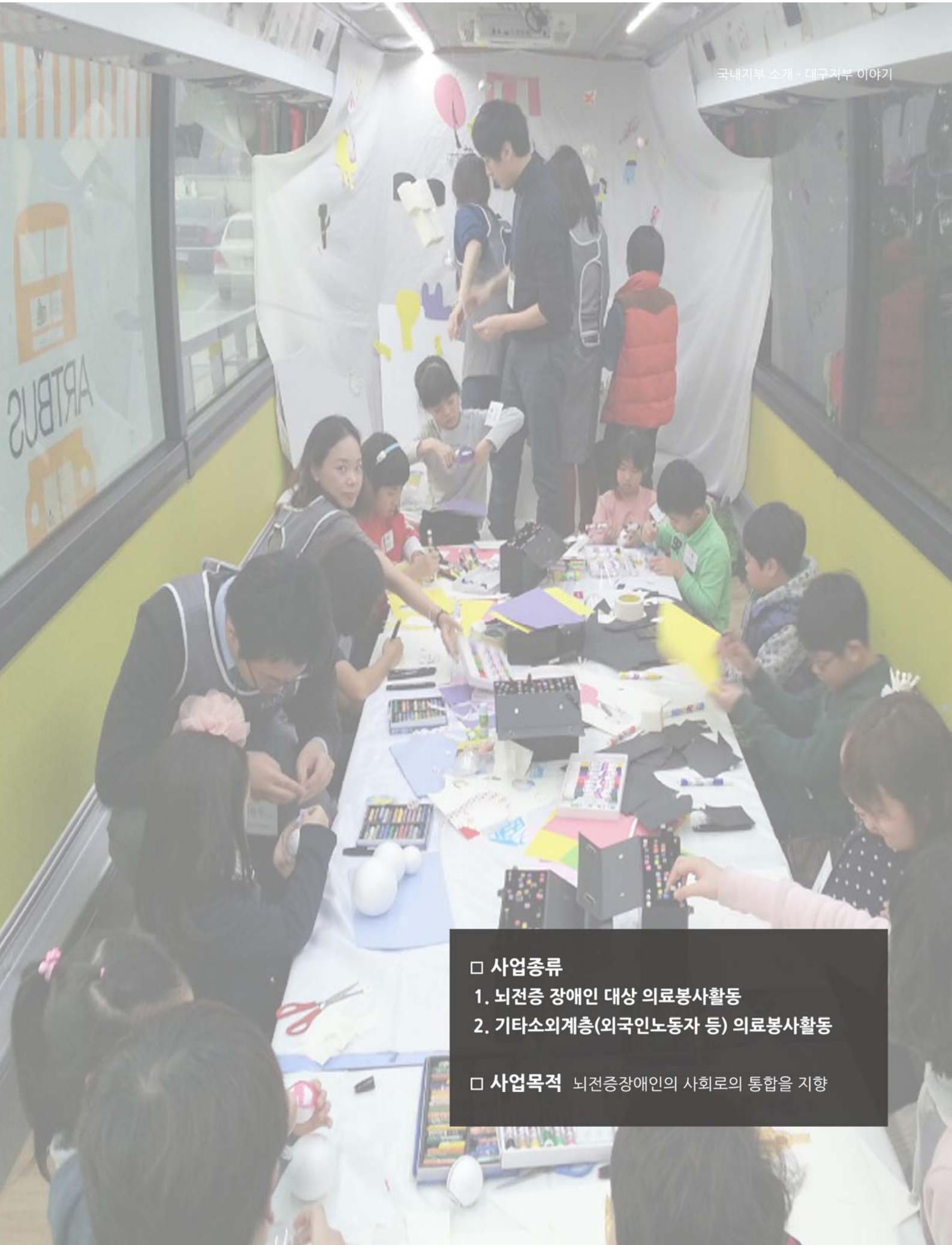
대구지부의 의료봉사 이야기

대구지부는 2010년부터 대구광역시 중구를 중심으로 '의료부문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해왔습니다. '좋은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대구지부 이야기로 초대합니다.



(재)새누리좋은사람들의 대구지부인 대구 진료소는 1995년 3월부터 16년간 대구지역 뇌전증환자들의 무료진료를 실천해왔습니다. 이후 뇌전증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2010년 9월부터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지부로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대구지부는 뇌전증장애인들에게 의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재활서비스 및 취업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인들에게는 뇌전증에 대한 인식계몽활동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뇌전증 환자들도 사회,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효과와 일반인의 뇌전증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사업종류

1. 뇌전증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활동
2. 기타소외계층(외국인노동자 등) 의료봉사활동

□ 사업목적 뇌전증장애인의 사회로의 통합을 지향



1. 뇌전증 장애인 대상 의료봉사활동

뇌전증 장애인과 그 가족,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서적·육체적 재활 및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소아 뇌전증환아 재활프로그램

- 환아-부모재활프로그램, 자조모임
- 환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재활프로그램으로 아이가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아이와 부모가 잘 소통할 수 있게 합니다.

2) 성인 뇌전증환자 적응프로그램

- 자아성장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 질병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사회에 융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그들의 상처받은 자아를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뇌전증 환자와 가족의 심리치료 및 역할 프로그램

- 사회극과 역할극, 심리상담
- 뇌전증 환자가 사회구성원으로서 겪을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극과 역할극을 진행합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상담과 가족상담을 실시합니다.



4) 뇌전증 사회인식개선 홍보사업

- 뇌전증 관련 강연 등
- 질병으로 인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없다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5) 소아 뇌전증환아 특별재활프로그램

- 예술창작활동 (아트버스 프로그램)
- 어린 환아를 대상으로 ART BUS같은 예술창작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환아의 정서함양에 도움을 줍니다.



2. 대구지역 소외계층 및 외국인근로자 의료봉사활동

경제적 사정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뇌전증 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Photo



꿈을 품다, 세상을 담다





좋은 사람들,
함께 걷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새누리좋은사람들의 모습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담았습니다

1. 이해관계자가 바라보는 새누리좋은사람들
2. 이해관계자 소통

1. 이해관계자가 바라보는 새누리좋은사람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첫 이해관계자 보고서를 준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바라보는 새누리좋은사람들의 모습을 담 아보고자 설문을 통해 재단의 이미지와 소통 활동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응답을 정 리하여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이다.

한길을 가는 사람들	협력	신선한 한줄기 빛	열정과 진격의 NGO
섬김과 실천	한다면 한다	참 봉사단체	대복사업
의리	꿈, 희망	비전트립	알차고 단단한 열매 맺음

설문을 통해 새누리좋은사람들을 설명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나왔지만, 무엇보다 설문에 응답한 이해관계자들 대다 수가 새누리좋은사람들을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전진 하는 단체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새누리좋은사람들은 감사한 마음과 함께 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모두 긍정적이기만 하지는 않겠지만, 이해관계자 여러분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더욱 발전된 모습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져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진단과 강화를 위한 새누리좋은사람들의 계획

새누리좋은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모습에 대해서는 보다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소식지를 잘 전달해 주세요!”

설문에 응답한 이해관계자들 중에는 재단의 소식지를 잘 받아보고 꼼꼼하게 읽고 있다고 응답한 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재단의 소식지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받아보다가 중단되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앞으로 보다 체계적인 이해관계자 관리 노력을 통해 소식지의 수신 대상이 누락되지 않고, 보다 많은 이해관계자 여러분들이 소식지를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소식지(뉴스레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수신자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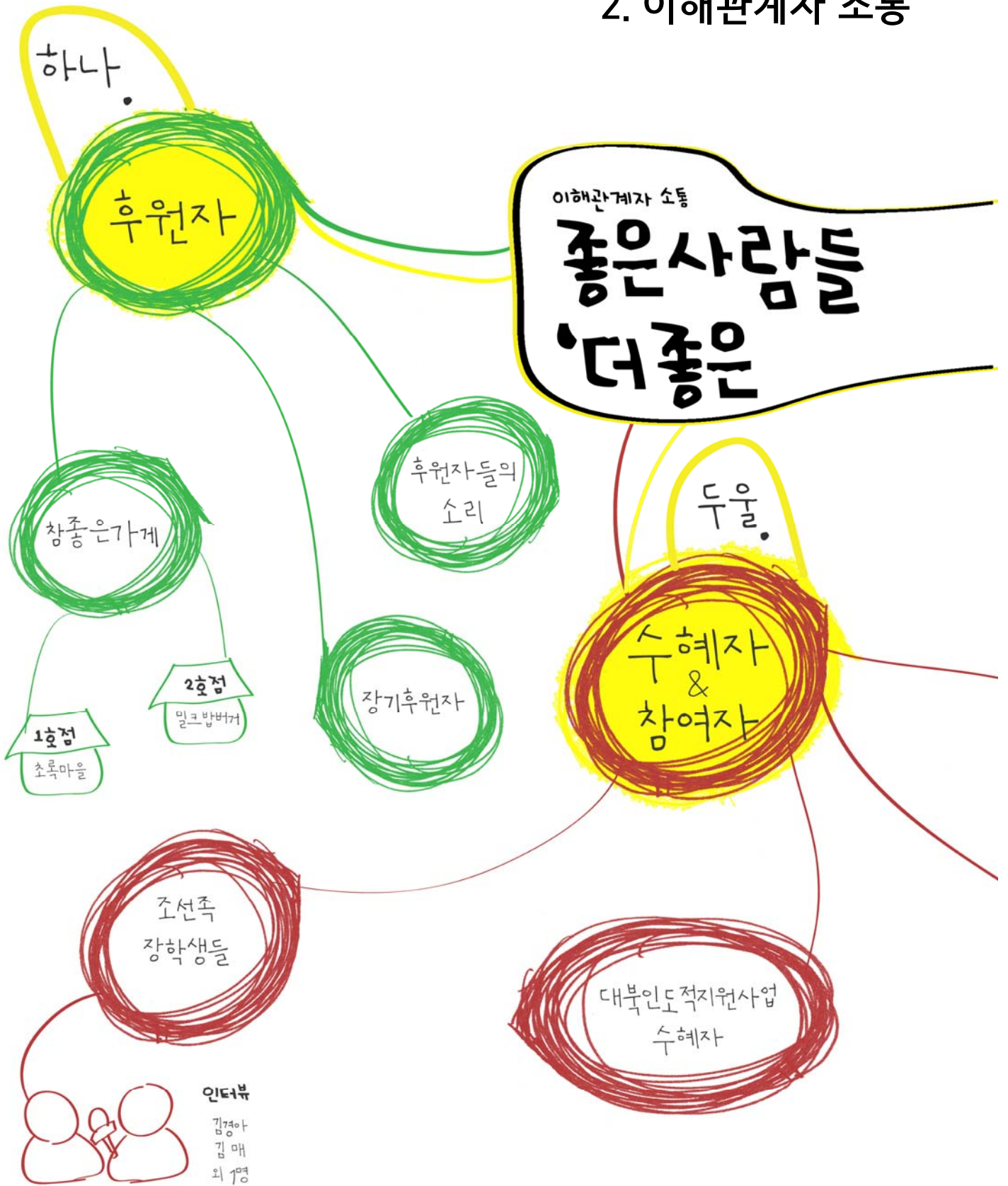
“뉴스레터에 보다 관심 가는 내용을 많이 담아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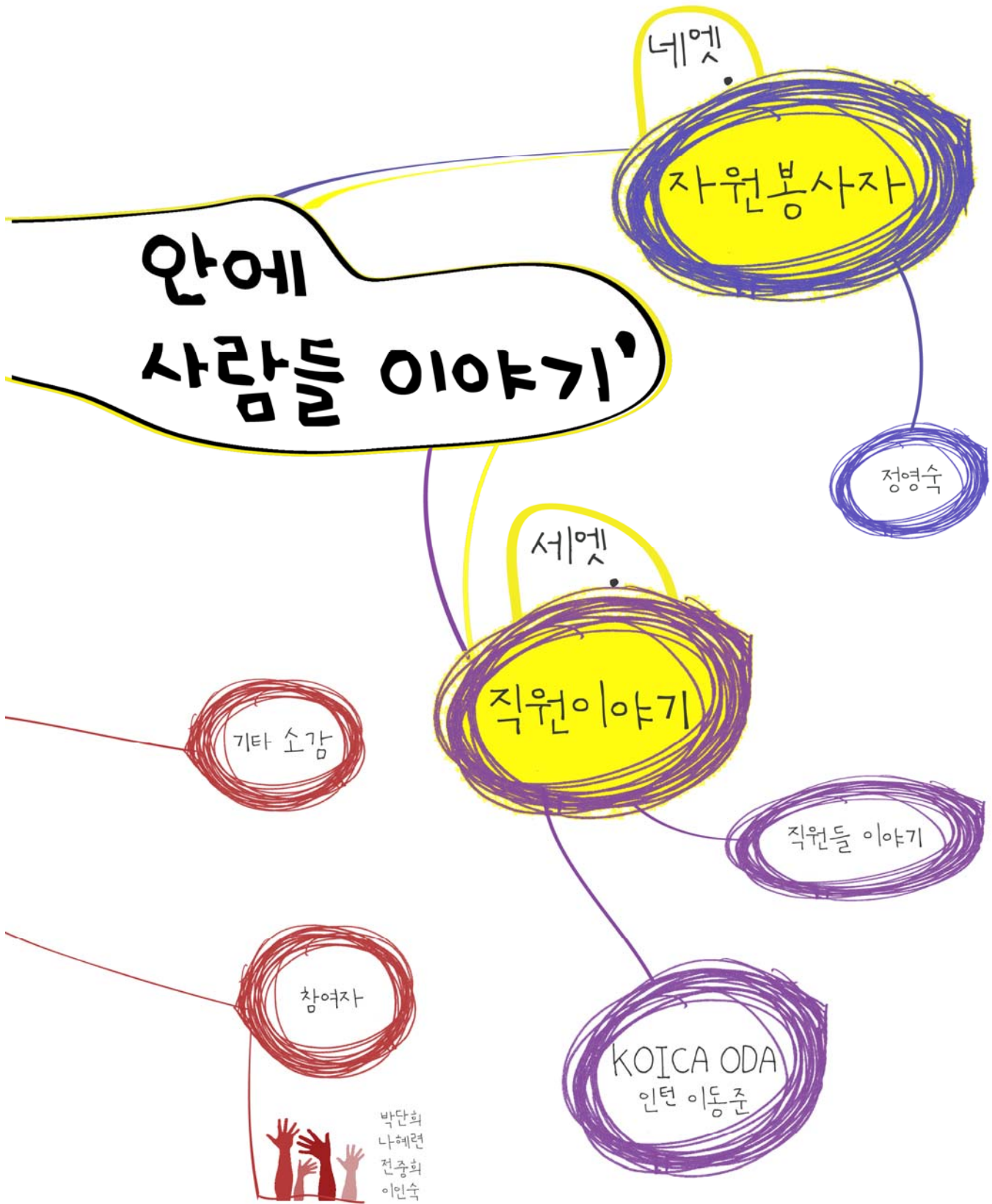
적지 않은 분들이 새누리좋은사람들이 보내는 뉴스레터를 관심 가지고 구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레터가 흥미를 끌지 못한다거나 또는 뉴스레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단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만 담기보다, 후원자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들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수 있는 기회들도 더 자주 마련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현장의 소식들을 더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세요!”

새누리좋은사람들은 그 간 좋은 소식들을 중심으로 뉴스레터의 내용을 채웠습니다. 이에 대해 응답자 중 여러 분들이 좋은 소식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설문을 통해 전달해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의 진행상황 뿐만 아니라 사업의 취지와 사업에 담긴 의미 등 보다 가치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함께 공유해 달라는 목소리들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재단의 전문 분야인 북한의 현황에 대한 정보도 충분히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응답도 다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현장의 소식들을 보다 풍부하게 구성하여 뉴스레터를 통한 소통의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 이해관계자 소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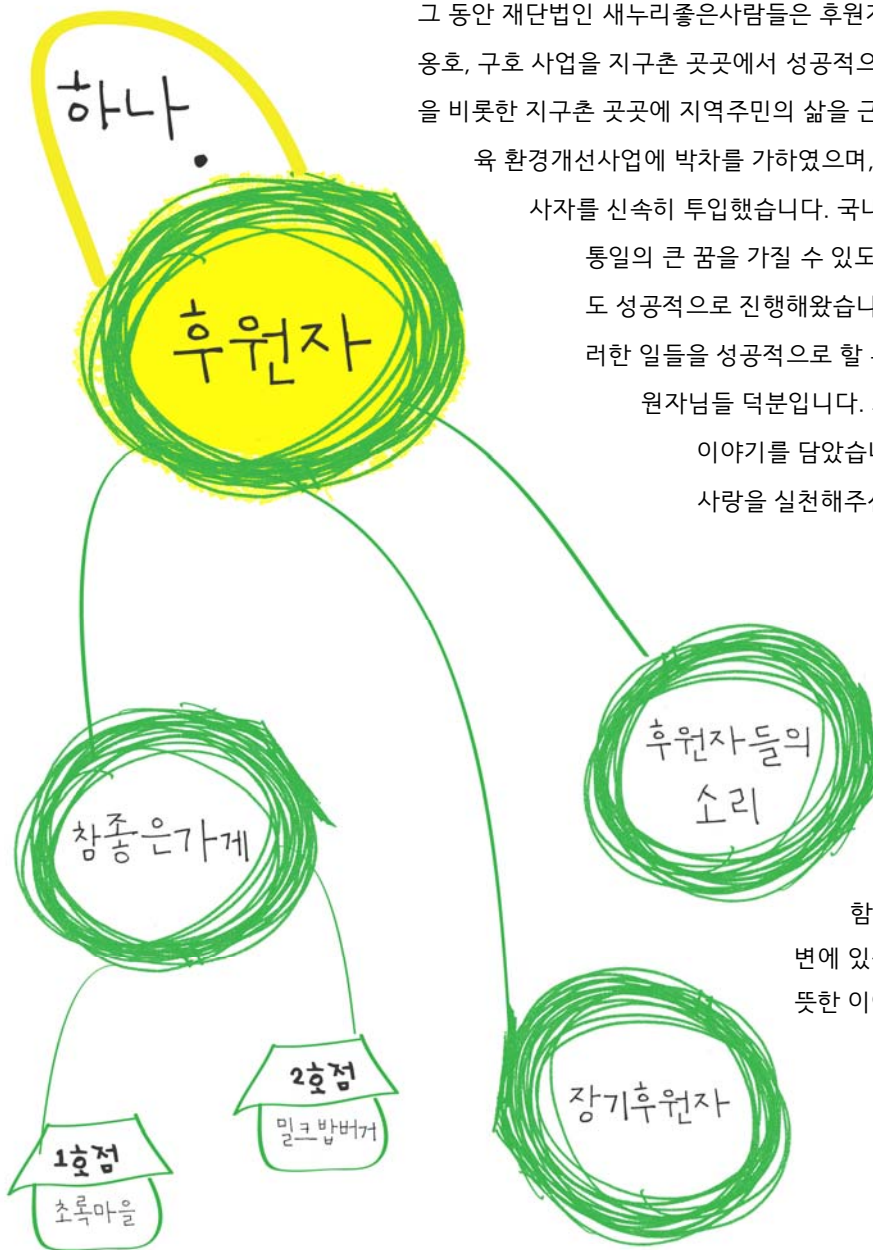
새누리좋은사람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소통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소통의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는 소통채널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홈페이지, SNS, 이메일 등)
- ② 간접커뮤니케이션(전화, 뉴스레터, 설문조사 및 편지 등 각종문서교류)
- ③ 직접커뮤니케이션(행사, 인터뷰, 방문, 만남의 장)

이러한 채널들을 통해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이해관계자들과 서로 공감하고 대화하며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재단의 존재 가치와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후원자 이야기

그 동안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은 후원자님의 성원과 사랑으로 계획했던 개발, 옹호, 구호 사업을 지구촌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와 북한을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지역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의료 및 교육 환경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긴급구호현장에는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신속히 투입했습니다. 국내의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평화통일의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북중접경지역을 장정하는 비전트립도 성공적으로 진행해왔습니다.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마음을 함께 한 후원자님들 덕분입니다. 그런 고마운 마음을 담아 후원자님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국경과 이념, 종교 등을 초월하여 사랑을 실천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1. 참좋은가게 후원자 이야기

단순히 수익을 좇기 보다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소비자들에게도 나눔 실천에 함께했다는 기쁨을 주는 가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자 합니다.

Nice Store

밀크밥버거 숙대역점



“대학가의 저렴하고 맛있는 참좋은가게”

1번째로 선정된 참좋은가게는 4호선 숙대입구역 3번출구 밀크밥버거 숙대역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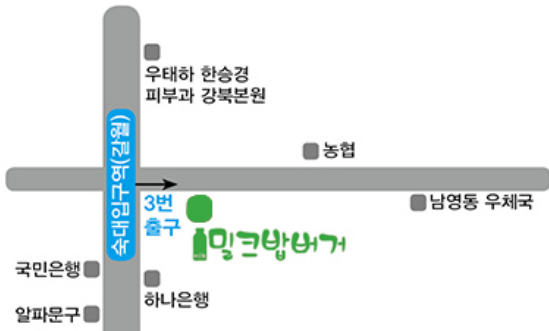
지하철 숙대역 앞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고 대학가라서 저렴하고 더 풍성한 밀크밥버거!!

요즘 패스트푸드점이 빠르고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로 특히 젊은 사람들이 자주 먹게 되는데요, 그만큼 밀가루가 좋지 않다는 생각에 걱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더 추천하고 싶은 밀크밥버거는 햄버거(번) 대신 밥이 주원료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패티 외에도 다양한 재료를 넣어 소비자들의 다양한 식성에 맞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햄버거보다 더 든든하고 건강한 한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본 밀크밥버거에서 군대리아, 웰빙비빔밥, 갈릭

베이컨, 매콤참치알, 해쉬브라운, 카레돈까스, 통새우튀김, 치킨참치마요, 청양불고기 등까지 매우 다양한 메뉴가 1500원 ~ 3000원에 판매되고 있어 저렴하기까지한 밀크밥버거는 이에 더해 나눔을 실천하는 참좋은가게입니다.

여러모로 참좋은 밀크밥버거 숙대역점에서 맛있는 밥버거 드시면서 나눔까지 하는 기분좋은 한끼하시길 바랍니다. ^^



>> 화살표방향 3번출구로 나오시면 바로 보입니다.





숙대입구역 3번 출구에 가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밀크밥버거 가게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식사를 잘 챙기지 못하는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최광식-강순화 부부 후원자 분들께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재단에 후원을 해주시고 계셨는데요, 가게를 운영하시게 되면서 참좋은가게 1호점의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업장에 참좋은가게를 상징하는 현판을 달고 후원 받는 어린이들의 사진도 함께 걸어두시며 자주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을 소개하는 홍보지도 비치해두셔서 많은 손님들이 나눔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나눔전도사가 되셨지요!

힘들더라도 언제나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참좋은가게에 동참 해주셨다는 밀크밥버거 사장님의 훈훈한 제안, 어떠세요?

2 Nice Store

초록마을 용산리첸시아점



“건강한 먹거리 가득한 참좋은가게”

2번째로 선정된 참좋은가게는 본 재단(용산리첸시아파트 상가 2층)과 아주 가까운 초록마을 용산리첸시아점(1층)입니다.

젊은 부부께서 운영하는 친환경 매장으로 두 분은 운영하시기 전부터 유기농 식재료를 직접 구입해서 먹다가 결국 집 근처에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제품을 접하며 판매하다 보니 판매제품의 품질에 더욱 만족했고 이것을 손님에게 직접 알리고 싶었다고 합니다.

초록마을 용산리첸시아점에 오시면 무항생제 쇠고기 및 유기농 채소, 과일 그리고 피부타입 맞춤형 스킨케어 제품까지 건강하고 신선한 제품들을 보

실 수 있습니다.

점주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고, 식재료는 직접 먹어보기에 제품에 대한 특성을 정확히 알고 소비자들에게 솔직하게 추천하여, 신뢰감을 형성하는 좋은 판매와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초록마을 용산리첸시아점의 대표 인기 상품은 사과, 바나나, 딸기 등의 친환경 과일과 채소, 유기농떡볶이, 클렌징 오일, 행복한 시간 화장품, 해물삼투 등으로 이는 제품을 직접 사용해본 손님들의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얻은 상품들입니다.

안전한 먹거리가 이슈인 요즘 기부를 통해서 좋은나눔도 실천하고, 친환경농법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초록마을 용산리첸시아점에서 바른소비를 하시기를 추천합니다.





재단 사무실 건물 1층에는 온 세상을 희망의 초록색으로 물들이는 초록마을이 있습니다. 유기농 식품가게로서, 주변 분들에게 인기가 많은데요.

새누리좋은사람들이 참좋은가게를 소개해드리려고 방문한 그날, 안 그래도 기부를 실천하고 싶었다며 참좋은가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젊은 부부 사장님은 기부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라고,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음까지 유기농처럼 건강하신 두 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싱싱한 초록색과 같습니다.

쪽방촌 주민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는 물품으로도 후원해주시는 등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우리의 이웃의 삶에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기를 원하시는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참좋은가게
기부하고 세금혜택 얻는
참 좋은 나눔, 좋은가게

1. 참좋은가게는?

참좋은가게는 중소기업의 자영업 증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말합니다. 음식점, 카페, 의류 등 업종에 상관없이 좋은 기부의 뜻을 가지고 계산 사업주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기부가 불러오는 더 큰 혜택!!

- 기부를 함으로써 세금혜택을 받게 되어 오히려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 "서로 좋은 기부"
- 참좋은가게 현판을 걸어서 "참 좋은 나눔" 을 실천하고 있는 좋은 가게 이미지 UP효과
- (재)세누리좋은사람들의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을 통한 가게 홍보 효과



3. 기부하는 금액은 어떻게 쓰이나요?

- 중국 조선족청소년 중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여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합니다.
- 해외 소외지역의 교육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진행에 사용합니다.
- 북한의 아동과 여성들에게 의료물품 및 의약품을 지원하거나, 영양식을 제공하여 최소한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진행합니다.

4. 나눔방법

-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달 정기적인 금액을 후원합니다. (□ 5만원, □ 10만원)

만남&상담
먼저 찾아가는 시스템

제안&협의
NICE STORE
취지설명

참여확정
후원신청서 작성
배너디자인 협의
후원사업분야 설정

활동진행
후원금입금, 현판부착
SNS, 홈페이지 홍보

평가&유지
참여확정 2주후 방문
매달 1차례 정기방문
지속적인 참여 유도

Nice Store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께서는 쉽게 나눔에 동참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윤리적 소비**라는 가치를 실현시키는 참좋은가게를 소개합니다.

참좋은가게가 되시면, 우리가 속한 사회와 이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홍보효과**와 **세금공제혜택**도 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서 가게의 사회공헌활동실천 **홍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재단**으로 연락부탁드립니다.

#2. 장기개인후원자 이야기

- 이종국님

재단의 오랜 후원자이자,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종국 후원자님을 인터뷰하였습니다. 쓴 소리도 해주시고, 진심이 느껴지는 사랑으로 격려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1. (재)새누리좋은사람들에 기부를 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돕고 누구를 위해서 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주변을 둘러보시면 아주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곳에 저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고 또 그 곳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도 함께 기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곳이 “새누리좋은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실천이 먼저인 곳, 즉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단체를 돕고 싶었습니다. 말이 아니고 행동하는 그런 단체 말입니다.

2. (재)새누리좋은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북한의 평양,필리핀,캄보디아,카자흐스탄,중국 등.. 모든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이야기 하자면 “한길 비전트립”입니다. 하지만 비전트립은 여느 중국여행과는 달랐습니다. 북,

중 국경을 접하면서 우리나라의 고대역사와 조선족들의 삶을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힘 없는 민족 역사의 굴레에서 살고 있는 우리민족의 한 틀을 바라보고 있자니, 저의 가슴이 한없는 눈물을 흘리게 하더군요.. 잠시나마 그들을 진료하고 상담하는 그 과정도 저에게는 뜻 깊은 일 이었습니다. 우리가 TV로만 보던 백두산의 천지도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3. (재)새누리좋은사람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정의 한다면 “앞으로 앞으로”입니다. 점점 더 발전하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 할 수 있는 “새누리좋은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초롱불이 되어서 밝게 비쳐 주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이런 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죠... “기부가 뭐야 그것을 왜 하나, 그 돈으로 밥이나 먹자” 라는 말을 하지만 그 것을 겪어본 분들은 절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 사랑, 봉사는 일에 참여를하기를 원하며, 그 일에 “새누리좋은사람들” 더 많은 노력했으면 합니다.

4. 나에게 기부는 [] 이다?

기부라... 나에게 기부는 “실천” 입니다. 실천 없이는 도전과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도전하세요 “실천”이라는 그 행동들을...

#3. 후원자들의 소리

많은 사람들이
1004명의
기부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부천사 파이팅!!
준비되는 통일한국을
위해서!!

참좋은가게를 통해
매출도 늘고 손님들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면 기뻐하네요!
감사합니다.

정치, 이념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New World Nice
People is a good
way to share!

북한 땅에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섬김의 자세로 누구
와도 소통할 수 있는 형태의
큰 역사를 이루는
새누리좋은사람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
새누리좋은사람들
언제나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

파이팅!

오늘도 새로운 누리를
꿈꾸며 화이팅!

새로운 누리엔
좋은 사람들만 가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움을 준다는 게
진정 멋지네요. 그만큼 이해와
관심의 폭이 넓은 거겠죠?

천사같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태풍 하이옌으로
고통받는 필리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감동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기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도
성고지에도 평상시에 치료 받으려고
수십 명씩 찾아와 치료해 줄 때마다
안쓰러웠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직접 하지 못하고 뒤에서
응원하고 후원하는
용사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미지 선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멀리서나마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말뿐이고 마음만 가득한
것이 아닌 실천의 봉사와
사랑에 찬사를 보냅니다.

클래드 많은 분들이 기도로
협력하고 물질로 마음으로
 동참하기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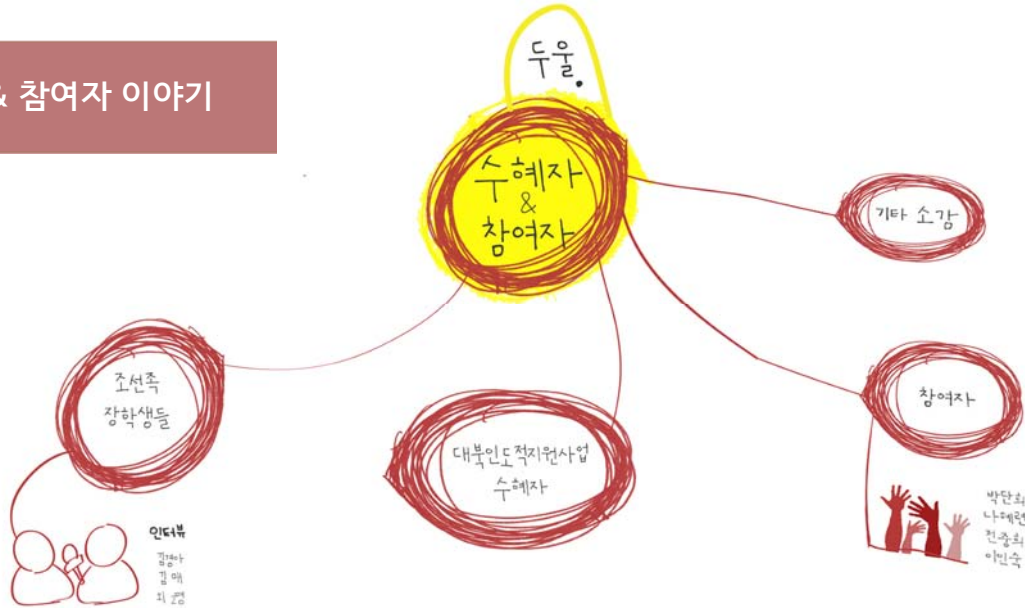
필리핀 긴급구호를
응원합니다.

정말 열심히
사랑해주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대들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e-mail을 통해 좋은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더욱
활동이 많아진 것 같아
기쁩니다.

수혜자 & 참여자 이야기



#1 조선족 장학생들 이야기

조선족 장학생들은 우리 선조들이 누렸던 드넓은 만주 땅이 있는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면 항일투쟁의 본거지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를 느끼면서 지금 우리를 있게 한 조상들의 정신을 배웁니다. 또한 같은 문화와 정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2014년에는 비전트립을 통해 여름마다 만나는 조선족 장학생들과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교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족혼을 지키려는 그들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백두산을 함께 등반한 조선족 학생

김경아



Q: 한국학생들 만나서, 여기 올라와서 느낀 점은요?

경아: 한국의 언니 오빠들을 만나니 매우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니 오빠들도 모두 잘 보살펴 주어 고맙습니다. 사실, 올라오는 길에 곤란(어려운 상황)은 많았지만 곤란 중에서도 “성공은 꼭 앞에 있다. 성공은 멀지 않다” 이런 말씀에 많은 고무(encouragement)를 받고 올라왔습니다. 천지에 올라와 보니, 성공한 것이 참 좋습니다. 성공한 감각도 좋고, 성공한 분위기도 좋습니다.

Q: 통일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경아: 통일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국의 조선족이고, 모두 한 집안인데 통일하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Q: 앞으로의 꿈은요?

경아: 앞으로의 꿈에 대해서는, 저는 변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되어서 자기 방식으로 정리를 수행하고 싶습니다.

백두산을 함께 등반한 조선족 남학생들

Q: 천지에 올라온 소감이 어떤가요?

학생들: 참 좋습니다.

Q: 한국의 대학생 형 누나들과 같이 왔는데 얘기해보니 어땠어요?

학생들: 좋아요. 형들이 자유로워요.

Q: 장학금을 받았는데,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요?

학생들: 저는 이후에 공부를 잘해서 의과 대학에 가서 의사가 되겠습니다.



조선장백중학교 2학년 김 매



매: 한국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여러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큰 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공부를 잘해 저보다 곤란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제 꿈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이번에 금방 대학입시를 마쳤습니다. 몇 년 사이에 계속 한길장학금 덕에 우리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후에도 북경에 있는 대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기회가 있으면 한국에 가서 여러 좋은사람들을 뵈려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 대북인도적 지원사업 수혜자 이야기

“남조선 선생님 덕택에 우리 어머니가 눈을 찾았습네다”

“남조선 선생님에게 감사합니다”

북한사람들에게서 좀처럼 들을 수 없던 이 한마디에도, 대북지원사업의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최고수령이 아닌 타인에게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경색되어 있지만, 한국과 북한의 국민들이 서로 ‘따뜻한 추억’들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이러한 여정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걸음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편견과 적대감을 줄이고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다가가겠습니다.



#3. 비전트립 참여자들 이야기

오랜 시간동안 분단국가로 있으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은 점점 퇴색되고, 관심을 가지는 미래세대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은 한길비전트립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북중접경지역을 일주일간 탐방하면서 역사의 현장과 통일의 현장을 오감으로 느껴왔습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500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받았던 감동을 '한길 비전트립 소감문'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동아대학교 박단희 탐방대원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중국으로 역사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경제학과에 재학중인 저는 우연히 정치외교학과 수업 듣게 되었고,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나기 위해 역사트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6박 7일간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가슴 아픈 순간도 많았고, 북한지역을 바라다보면서 가슴이 먹먹해 지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동북공정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피부로 느끼고 하니 정말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옛 우리나라 고구려 역사의 땅과 유적인데 중국은 그 곳에 대해 중국 역사라 덮어버리고, 한국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알아가기 위해서 입장료를 내야만 했습니다. 광개토태왕릉비부터 백두산까지 모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나 혼자라도 역사를 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역사 공부를 하여서 우리나라 역사를 잊지 말아야

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면서 압록강, 두만강의 건너편에 있는 북한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 나무가 없다는 말만 들었는데 실제로 높은 산에 나무가 없는 광경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압록강에서 보트를 타고 북한 땅의 가까이 다가가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민족인데 몇몇 북한 주민들은 우리를 경계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들은 우리에게 돌맹이를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같은 우리 민족이라는 것만으로도 통일의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사실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백두산에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는 장백조선족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해서 훨씬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백두산 천지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만큼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가는 날 날씨가 무척 좋아서 백두산 천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약1400개의 계단을 올라서서 보는 백두산 천지는 굉장히 광활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다음에 백두산을 가게 된다면 북한에서 올라가 천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내내 맛있는 음식과 편한 숙소에서 머무를 수 있어서 더 좋은 트립이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과연 나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찾았는가?'에 대해 계속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명확한 답은 내리지 못하였지만 나의 인생에 있어서 충분히 가치 있고 너무나 좋은 기회였다는 것만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혜언니의 말처럼,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반성하고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행문

- 김태균 탐방대원

7월 22일부터 7월 27일까지 5천리를 여행하는 비전트립을 갔다. 나는 그냥 역사여행, 외국 나가는데 놀러가는 줄 알았다. 하지만 다시 돌이켜보고, 생각해보고, 반성해보니 이견 아닌 것 같았다. 버스도 참 많이 타서 지루한 면도 있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니 버스 밖 풍경을 보는 것도 좋았다.

첫날 단동에서 압록강을 갔다. 말로만 듣던 압록강 철교도 가보고, 유람선에서 북한을 좀 더 가까이 볼 수 있었다. 유람선을 타고 있는 중에 북한 작은 배 한척이 물건을 팔러 유람선에 붙었다. 참으로 딱해 보였다. 나는 이렇게 잘살고 놀러도 다니는데 북한 사람들은 오늘 살기 위해 돈을 힘겹게 버는 모습을 보았다. 옷차림새도 매우 낡고 허름해 보였다. 둘째 날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일정도 바뀌고, 좀 더 멀리가야해서 버스타고 있는 시간도 늘어났다. 수풍댐, 호산장성(박작성)도 보고 싶었지만 아쉬웠다. 밥도 중국식으로 먹는 게 좋았다. 또 맛있었다. 셋째 날 교과서에서 보던 장군총, 광개토태왕비와 광개토태왕릉을 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뛰었다. 아직도 기억이 남는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백두산 가는 넷째 날... 아침 날씨는 괜찮았지만, 올라갈수록 점점 기상이 악화되었다. 올라갔지만 천지는 못 봤다. 하지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비는 세차게 오고, 몇몇 친구들은 아프면서 올라가고, 지도해주시는 분들도 고마웠다. 내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것도 모두 비전트립을 함께 해준 분들 덕분이다. 다섯째 날 도문과 용정에 갔다. 훈춘 두만강 대교도 가보았다. 이 다리는 왕래가 자주 있지는 않았지만 통행 허가증만 있으면 건널 수 있다고 한다.도문 대교를 중심에 두고 남양구와 도문이 있었다. 한쪽은 대교에 색이 칠해져 있었다. 나가는 길에 탈북 수용소도 보여주셨다. 전에는 유리창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소리도 들린다고 하셨다. 용정으로 갔다. 용의 우물이라는 곳이다. 용정에서 4km 떨어져 있는 비암산 일송정 언덕이 있다. 보고 싶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 운동주 생가도 가보았다. 시도 읽어보고 외웠다. 운동주 생가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니 고맙고 본받고 싶다.

이번 비전트립을 다녀와서 느낀 것이 많다. 학교에 가서도 역사 시간엔 졸지 않고 챙겨 들어야겠다. 언젠가 커서 다시 비전트립 루트를 따라 여행해 보고 싶다. 이번 비전트립을 준비해주시고, 안전 걱정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씨로 함께 한 모든 선생님과 사무총장님, 목사님들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배워갑니다. 고맙습니다.



한길 비전트립을 다녀오며

- 무등 중학교 교사 나혜련 탐방대원

한길 역사탐방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내가 부끄러운 어른, 책임감 없는 교사라는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부터이다. '아유레디' 영상과 북한 선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이 나라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심하게 방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면서 북한을 향한 중국의 야욕과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아니 의무감과 책임감이 들었다. 그렇게 시작한 이번 여행 첫날 압록강 철교, 손에 닿을 듯 한 북한 땅! TV에서, 책에서 본 적이 있지만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이다. '직접 본다면 난 어떤 느낌이 들까? 가슴 아프게 북한에 대한 뜨거운 마음들이 올라오게 될까?' 하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막상 대면하는 순간은 그저 신기하고 '정말 듣던 대로 의 광경이네' 라는 생각! 의외로 절절한 마음이 덜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그 이후의 일정들 고구려 역사를 볼 수 있는 집안, 항일 운동을 했던 용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곧 건너 갈 수 있을 것 같은 북한 땅과 도문! 그리고 백두산 천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보고 싶었고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경험이었다. 고구려 땅을 내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 한반도를 참 축복 하셨구나' 라는 생각과 그 땅을 지키지 못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맘이 아프고 안타깝다 못해 화가 났다. 이러한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어떠한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쳐야 하는지가 나의 앞으로의 숙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여행을 통해 받은 감격이 한 순간의 여행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깊어지기를 스스로 다짐한다. 아는 만큼 감동의 크기도 다른 것 같다. 그 동안 무관심했던 북한의 실정과 아픔, 중국의 야욕,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내 안의 역사의식과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키워 학생들 앞에 서고 싶다. 그리고 이것들이 나를 만나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청소년들에게 건강하게 흘러가길 바란다.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무지하고 나만의 안정을 취하는 부끄러운 어른으로 살지 않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적 현장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 전중희 탐방대원

금년이 환갑이라며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을 다녀오라고 성화를 부리는 아이들이 대견하고 고마워서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여행지를 물색하던 중 중국어 예배반에서 역사탐방으로 5박 6일의 중국비전트립 계획이 있어 일반여행보다는 의미가 있다 싶어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박점분 전도사님의 인솔 하에 15명의 교인들과 함께 인천공항을 8시 10분에 출발해 기내에서 아침식사와 커피 한 잔을 마시니 중국 심양공항에 도착한다는 기내 방송 멘트에 새삼 중국이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은 단동지역을 탐방하였다. 단동은 요녕성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 중국 최대의 국경도시로 압록강이 흐르고 북한의 신의주를 강 건너편 아주 가까이 볼 수 있어 감회가 새로웠다. 한국전쟁 때 중공군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엔군이 폭파한 압록강 철교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역사책과 방송으로만 보던 바로 그 철교를 북한 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중국 땅을 통해서 바라본다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에 뭔가 뻥 뚫린 마음이 든 것은 무엇이였을까. 압록강을 다라 하구로 내려가니 말로만 듣던 위화도가 나타났다. 이성계가 최영장군의 명을 따라 명나라를 당시 침공 하였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다. 중국 땅에서 바라보니 위화도는 아주 가까이 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건널 수 있는 좁은 강이 중국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세월의 흐름에 많은 지형 변화가 있었다고 하여도 말이다. 위화도 바로 옆에 고구려가 당나라 침략을 방어하기 위하여 쌓았던 호산장성을 등정하면서 이곳도 그

옛날 고구려 땅이었구나 생각하니 왠지 오늘날 우리가 고구려의 그 기백과 기상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사색에 잠시 들게 하였다. 둘째 날은 단동에서 버스로 약 5시간 반 정도 내륙으로 이동하여 집안에서 진행되었다. 집안은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로 424년간 고구려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다는 설명을 들었다. 집안은 압록강과 훈강수로의 교통 중심지로 육로 및 북한과 이어지는 철도 등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주위에 환도산성, 광개토대왕비왕릉, 장수왕릉, 오회분 5호묘 등 유서 깊은 유적지가 있는 곳이다. 내륙으로 5시간 반 버스로 이동할 정도로 깊숙이 고구려 유적지가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구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유적지를 돌아보는 중간중간에 인접한 북한의 산을 볼 수가 있었는데 중국 땅과 북한 땅이 한 눈에 분간이 되었다. 숲이 우거진 산은 중국 땅이고 땃감과 옥수수 재배를 위해 산을 개간한 민둥산은 북한 땅임을 보면서 북한에서 장마철에 산사태가 난다는 보도가 사실임을 실감하면서 북녘땅에 속히 주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길 기도하게 되었다. 셋째 날은 박점분 전도사님이 6년간 섬기던 통화의 동안교회에서 그곳 교인들과 더불어 찬양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수요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2~30명의 교인들과 함께 중국 땅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렸다. 생각보다 교회당의 규모가 크고 많은 교인들이 있다는 설명에 공안원들이 감시하고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상기할 때 중국이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런데 동안교회는 중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삼자교회여서 교인들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공안원들의 탄압을 받는다는 말에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넷째 날은 백두산 천지를 등정하기로 되어 있어 아침 일찍부터 팀원들은 설렘으로 들떠 있었다. 백두산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고 부른다. 백두산은 해발 2,744미터로 중국에서 오르는 서파의 금강대협곡, 북파의 장백폭포, 남파의 압록강 대협곡의 코스가 있는데 우리는 서파의 코스를 택하기로 하였다. 백두산의 기후변화는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는 변화무쌍한 기후라 전남 팀 기도회에서 날씨를 좋게 해 달라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설렘으로 등반을 하였다. 산 정상 근처까지는 버스로 이동하고 1442계단을 도보로 이동하였는데 민족의 영산을 처음 등반한다는 생각에 모두들 힘들다는 생각을 잊은채 단번에 천지까지 올랐다. 순간 사진으로만 보았던 천지가 눈앞에 들어오는데 숨이 멎을 것만 같은 감격이 몰려왔다. 5번씩 백두산에 가셔도 천지를 못 봤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 번에 천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두들 가슴 벅차 했다.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중국 사람들이 백두산 관광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는 생각을 하였다. 북한 쪽의 백두산 천지인 장군봉 쪽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한가하고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 수입을 올리는데 같은 동족인 북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언제 북한을 통해 백두산을 자유롭게 등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통일에 대해 기도하게 되었다. 다섯째 날은 조선족이 40%정도 차지하고 있다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연길시와 조선민족박물관인 연변박물관을 탐방하였다. 고구려의 유물들로 가득 찬 박물관을 보면서 이곳이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어느



박물관을 견학하는 듯 묘한 기분이 들었다. 고구려의 끝없는 도전정신과 기마민족의 기상을 중국 땅에서 느끼며 이곳이 고구려의 역사 중심지라는 생각이 나를 고구려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이어서 조선족이 총인구의 66%가 될 정도로 많이 모여 살고 있다는 용정시와 가곡 선구자의 가사에 나오는 해란강과 일송정을 둘러보았다. 일제시대에 망국의 슬픔, 암울한 앞날에 눈물을 흘리며 수많은 독립투사들과 백야 김좌진 장군 등 독립군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훈련하고 계획을 세웠던 북간도의 땅 용정, 그 역사적 현장을 바라보면서 묘한 감회가 몰려왔다. 그들의 희생으로 해방된 자유의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잃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여섯째 날은 탐방 마지막 날임에도 바쁘게 일정을 소화했다.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혼을 깨우게 했던 근대 민족시인 윤동주의 생가와 그가 다녔던 대성중학교를 견학하고 최초의 한글성경을 번역한 동관교회를 탐방하였다. 중국에서 최초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고 그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를 생각하며 북한과 중국 땅이 하루 빨리 복음화되는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의미 있는 비전트립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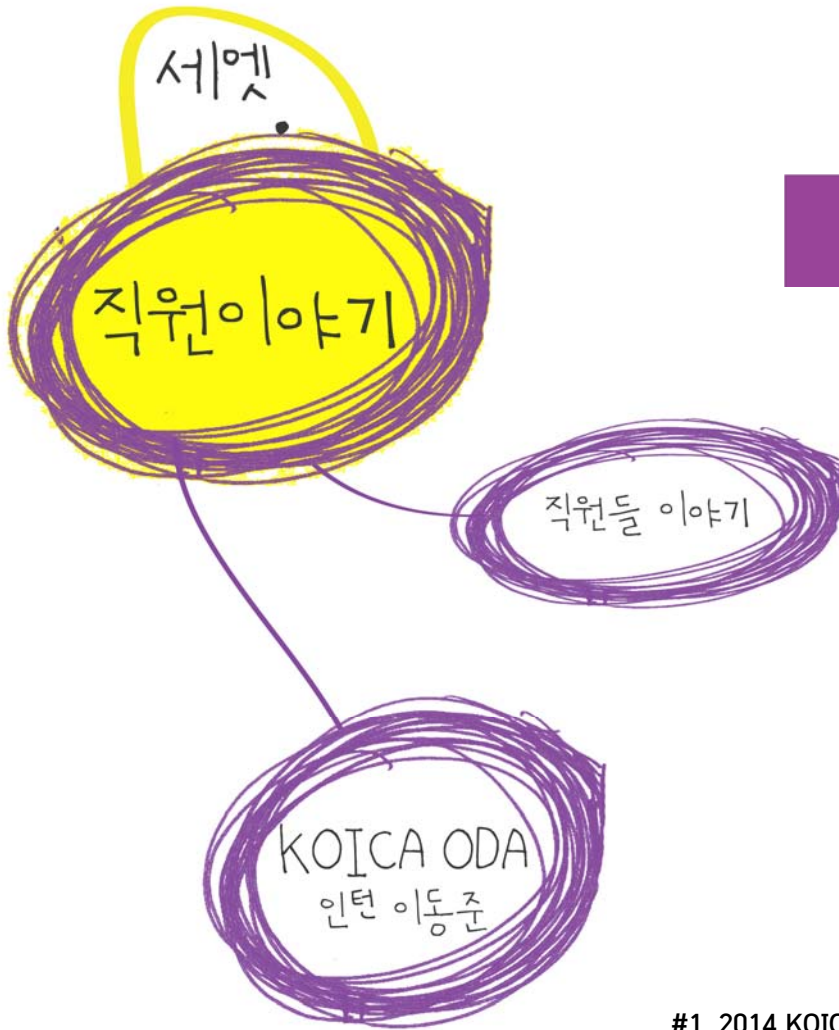
백두산 자락나무

사람의 경계에 서서
생명의 길을 가라
치우침 없이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름다운 소명일지니.

- 이인숙

#4. 기탁 소감

- 우리의 미래들이 꿈을 꾸는 귀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항상 응원합니다.
-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값진 시간이었고 딸에게 산 교육장이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열정과 신념 잊지 않고 우리단체가 힘든 길 가야 할 때 되짚어 보면서 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부족하고 불편했던 시간보다 돌아 보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비전트립을 통해 이 땅의 많은 청년들 이 새로운 비전을 찾는 기회가 되길 기도 드립니다.
- 비전트립을 통해 이 나라 민족을 책임질 청소년들이 큰 꿈을 꾸길 소망합니다.
- 존경스러운 여정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한 청소년들의 비전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확신합니다.
- 함께 했던 시간들 정말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 통일을 향한 힘찬 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직원 이야기

#1. 2014 KOICA ODA인턴 이동준의 ODA현장이야기



필리핀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

|| 자기소개 및 ODA파견근무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새누리좋은사람들 해외사업부 이동준 간사입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지부의 사업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통 8시까지 아침식사를 마치고 9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요, 지부에서 섬기는 곳이 여러 곳이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나가기도 하고, 보통 오후 4~5시 사이에 마무리됩니다.

|| 해외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보람이 있었던 일이 있으신가요?

해외사업 담당으로 나올 때마다 느끼지만 개도국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 깊숙히 들어가 보면 관광지의 화려함 뒤에 감춰져 있는 이들의 빈곤한 삶이 마음을 참 아프게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필리핀 세부외의 경우 세계적인 관광지이기에 더욱 그 괴리가 크게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곳에 와서 저는 필리핀 사람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 더욱 열악한 삶을 사는 쓰레기 마을에 자주 방문하고 있는데요, 그 곳에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배고픔과 질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을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간단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받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들이 비록 작지만 이들에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 쪽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 그 곳에서 만난 현지인들 중에 특별히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제가 이곳에 와서 쓰레기 마을의 한 아이를 치료해 주고자 막탄 섬의 가장 큰 병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소코로 선생님은 소아과 전문의인데 이 지역에서 소아과 분야로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저는 유명한 의사이고 좋은 병원에 근무하기에 지저분한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내심 걱정이 됐습니다만, 소코로 선생님은 전혀 불편한 기색 없이 아주 친절하게 오래도록 아이를 진료해 주었고 아이 엄마를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진료를 마친 후,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진료비가 전혀 청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국에서 와서 필리핀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한다며 무료로 진료를 해주셨고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오면 무료로 진료를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한 날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소코로 선생님의 따뜻한 인술은 제 마음을 깊이 감동 시켰습니다.”

|| 새누리좋은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안 가장 특별히 기억에 남는 추억이 떠오를 때가 있나요?

여러 일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해피빈 모금함을 통해 신한은행의 지원을 받기로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비록 작은 규모의 지원사업이었지만 제가 새누리좋은사람들에 입사한 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따낸 것이라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 사업을 수행하면서 더 알아가고 배우고 싶은 것은요?

사업수행 중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저들의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정신과 더 나아가 영혼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고민하고 알고 싶습니다.

|| 끝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항상 경험하는 것은 도와주려, 치료해주려 왔다가 내 스스로가 힐링되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돕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 직원들 생활이야기

직원들은 서로 협력하여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도 합니다. 함께 일하는 시간 이외에 직원간에 함께 하는 시간은 식사시간, 티타임, 워크샵, 기념일 등이 있습니다.

특히 워크샵에서는 함께 며칠간 생활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교류들을 통해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의 비전을 향해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입사 1개월

새누리 좋은사람들 안에서 활동하는 직원들은 입사 1개월 내에 사내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은 재단의 사명과 가치를 한번 더 내면화하는 시간과 각 직무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입사 6개월

반년 정도가 지나면, 편안한 자연속에서 일적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평소 서로 하지 못했던 말들과 감사했던 일들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또한 서로의 성향과 강점, 단점에 대해 알아가며 보완하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관계적 지식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선후배 교류와 티타임

NGO활동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로와 사업진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꿈을 찾아나갑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교류하다보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서로간에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티타임은 직원들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입사 1년

활동가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으려면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다함께 자연 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더 큰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 떠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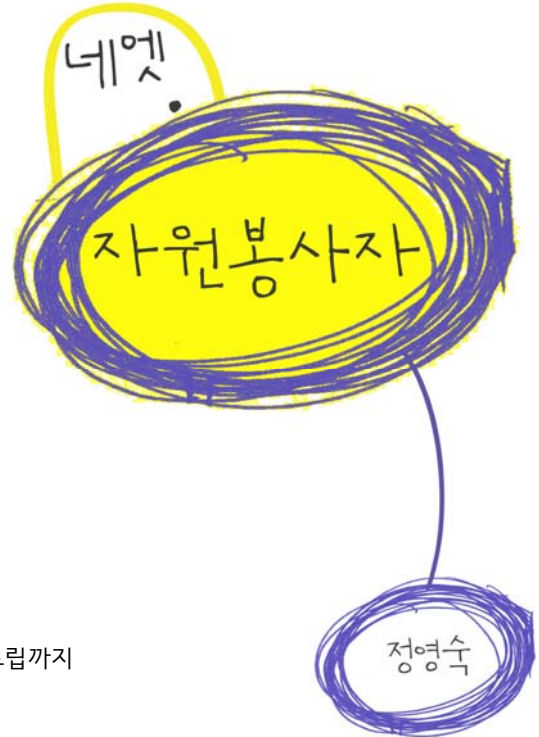


직원 생일파티

서로에게 특별한 날을 챙겨주고, 사회의 작은빛으로 살아가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원봉사자 이야기



#1. 새누리좋은사람들 홍보대사 정영숙 텔런트 이야기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정영숙 홍보대사님은
재단 설립 때부터 홍보대사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타지키스탄의 ODA사업, 필리핀 긴급구호 현장, 북중접경지역 비전트립까지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열정의 이유를 함께 나눕니다.



정영숙 홍보대사 인터뷰

Q: 새누리좋은사람들과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A: 예전부터 인연이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던 재단이고, 사실 타 단체를 통해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많지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한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선한 일들이고 좋은 일들이라 참여를 망설이는 것도 제게는 갈등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몇 번 가다 보니 인연이 되었습니다.

Q: 홍보대사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무엇인가요?

A: 사실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비전트립이 가장 즐거우면서도 아픈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다녀온 광주 베엘교회의 성도님들도 나와 같은 느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어떻게 비전트립에 참가하게 되셨나요?

A: 개인적으로 이북출신으로서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가는 비전트립의 일정에 욕심이 났습니다. 북녘의 땅을 3번 정도 방문했는데, 연이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Q: 비전트립을 통해 느꼈던 점을 말씀해주세요.

A: 정말 남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이번 비전트립의 특성상 중국을 먼저 보게 되는데 처음으로 놀란 것은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변화상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욕심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동시에 북한이 속국화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수없이 왜곡한 중국에 대해 서운함과 함께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대적으로 북한의 실정을 들여다보면서 침체하고 가라앉은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심장이 멎어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북에 다녀온 것보다 더 큰 느낌이었습니다. 해외여행만 다닐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보고 중국과 북한을 아울러 경험할 수 있는 새누리좋은사람들의 비전트립에 많은 사람들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Q: 비전트립에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이곳은 젊은이들이 와야 한다. 젊은이들이 실제로 많이 참여해서 보게 된다면 애국심을 가지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전트립을 통해 지금 그곳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를 남다르게 느낄 수 있는 우리는 가는 세대이지만, 이제 젊은 세대가 새로운 양상으로 보고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다녀온 어른들은 자녀들을 꼭 보내고 싶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사학과 출신이다 보니, 역사의 반쪽을 보는 듯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유적들이 우리와 중국이 단절되었던 시절에 북한과 교류했던 것만 유적화 된 것은 아쉬웠습니다. 우리의 없는 역사가 분명 그곳에 있는데,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들어 놓은 역사관으로 중국에서 주도권을 갖고 유적화 해둔 것이 아쉬웠습니다. 역사를 잘 모르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이 비전트립을 통해 별도의 교육이 필요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Q: 1년 전, 필리핀 하이엔 태풍으로 타클로반을 방문 하셨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 2013년 12월 1일,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을 강타했다는 소식을 듣고 (재)새누리좋은사람들과 함께 긴급구호에 나섰습니다. 도착한 타클로반은 전기와 먹을 것이 없는 암흑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잃은 자들에게 닭죽을 만들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특히 가장 피해가 컸던 파세오 해안에서는 구호기간 내에 950명을 진료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노숙하거나 빈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다. 전기도 없고 물은 지하수밖에 없는데다가, 그나마 지하수도 시신 등으로 오염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방치된 시체들이 부패되어가고 있었지요. 이러한 상황들은 전염병을 일으키기가 쉬워 긴급하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했지만,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은 봉사자들도 접근하기가 어려워 손길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하여 파리, 모기, 악취가 심한 진료지역에 방역도 직접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해서 뛰어다니며 따라다녔고, 어른들도 한명 두명 웃음을 찾아갔습니다. 모두들 고마워하며 코리아 넘버원을 외쳤지만 떠나오는 순간까지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체력이 있는 한 작은 힘이라도 되려고 직접 찾아간 그 시간은 제게 선물이었습니다.

Q: 새누리좋은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대북 관련한 모든 일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의 기간 동안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올바른 마음으로 선한 사업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람들,
세상에 말하다.



부록

새누리좋은사람들이 더 전해드리고 싶은 정보입니다

1. 언론보도
2. 2014 재무현황
3.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
4. 나눔플러스 • 독자설문지

1 언론보도



북 병원 영상 단독 입수...“약 없어 치료 못 받아”

[KBS / 2014.03.29 / 박진희]



<앵커 멘트>

북한 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보여주는 영상을 KBS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의약품을 구해오지 못하면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안타까운 증언도 담겨 있습니다.

박진희 북한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 지방도시에 있는 인민병원 진료실.

한쪽 편엔 나무로 불을 때 난방뿐만 아니라 치료용 물을 끓이는 벽난로가 있습니다.

선반 위에는 약품 용기 대용으로 술병이 어지러이 널려있습니다.

의료기구나 약품은 한눈에 봐도 부족한데다, 불결해 보이니까집니다.

특이하게 진료실 칸막이엔 민간요법이 적힌 메모지가 빼곡히 걸려있습니다.

<인터뷰> 북한 의사(이빈인후과) : “플립(응급)을 때는 기체가 없어 폭 때면 되는데 못 때고 (환자를) 내보내지요. 70년대 의학서적에 나오는 것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약품 공급이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개인이 비싸게 구입하는데 이마저도 어렵다고 합니다.

<녹취> 북한 평양 주민 : “(사춘이)돈이 없어 (약을 사지 못해) 치료를 못 받고 죽었어. 근데 그것을 (의사)선생님들에게 형의를 못해. (의사)선생님들도 우리 약이 없어서 치료 못했어 하면 다니까.”

북한의 영유아 사망률은 한국의 10배가 넘고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세계 117위로 70세도 안됩니다.

<인터뷰> 박현석(새누리 좋은 사람들 사무총장) : “북한의 열악한 의료환경이 그나마도 5.24 조치 이후에 대북지원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최악의 상태인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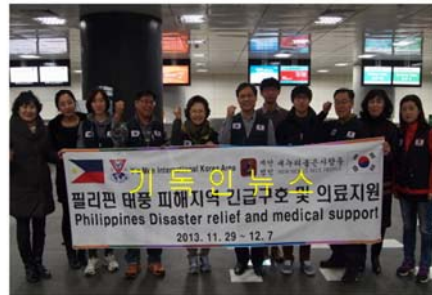
이런 사정은 평양의 병원들도 마찬가지여서 가벼운 질환에도 병을 키우다 숨지는 환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희입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 필리핀 긴급구호팀 파송해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의 긴급구호 및 의료지원 나서

[기독인뉴스 / 2013.12.04 / 기독교인뉴스 기자]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과 사단법인 국제와이즈맨은 지난 11월 29일 경기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으로 긴급구호봉사단을 파송해, 필리핀 재해지역 긴급구호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긴급구호봉사단은 필리핀 현지에서 도착해 피해지역인 타클로반에서 긴급구호와 긴급 의료지원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파송된 긴급구호봉사단에는 새누리좋은사람 박현석 사무총장, 정영숙텔런트(홍보대사), 대구동산병원장 손은익 박사, 박가정의학과의원 박철성 원장, 이미녀 간호사, 서울아산병원 유세원 간호사, 국제와이즈맨의 김성표, 임금칠 총재, 김사현 재무총장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선한의료인&(재)새누리좋은사람들 업무협약식

[국민일보/ 2014.12.18 / 장선숙 기자]



대북지원과 해외의료지원으로 심금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단법인 '선한의료인'과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이 업무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의료지원사역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선한의료인과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는 물론 북한 주민 영,유아지원사업과 북한 내 중앙연구소 현대화 사업을 추진중인 새누리 좋은 사람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한 내 의료시설과 장비 구축과 의약품 지원, 의료진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좋은사람들 박현석 사무총장은 “이날의 귀한 협력이 통일을 준비하는 복음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대북과 해외지역 보건의료 지원사역을 위해 인적, 물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미경 기자

2007-02-22

CBS 보도국 종교부 조혜진 기자
장미희, 북한 보건의료 개선에 나선다

2008-02-09

메디컬투데이 이동근 기자
북한판 닥터스, '평양의대 개안수술, 5일간의 보고'

2008-03-09

CBS TV 보도부 조혜진 기자
'오지말라' 불구 대북NGO 방북 차질 없다.

2008-08-18

국민일보 강주화 기자
새누리좋은사람들 첫 해외사업 '뉴라이프 클리닉' 시동

2009-01-28

크리스천투데이 송경호 기자
'섬김', 전혀 진부하지 않은 기독교인의 사명"

2010-02-16

연합뉴스
北식량난 심각.. "아사자발생, 급속히 전역 확산"
2010 3월호
민족 21 염규현 기자
"인도주의에는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됩니다."

2010-05-28

CTS 대구방송 고성은 기자
천안함 이후 대북지원 "영유아 지원은 계속"

2010-06-13

경향신문 홍진수 기자
[6·15선언 10년]"남북 경색 넘어 파탄...대통령 결단해야"

2010-06-03

재외동포신문 이석호 기자
"조선족 청소년들과 함께 두만강 압록강 역사탐방 떠나요"

2010-08-09

통일뉴스
'조선족동포 수해돕기 운동본부' 발족

2010-10-08

CBS TV보도부 고석표 기자
새누리좋은사람들, 압록강 철교 통해 밀가루 5백톤 지원

2011-05-02

헤럴드경제 이진용 기자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138곳에 22억 지원

2011-09-30

조선일보 이용수 기자
북민협, 北수해지역에 밀가루 등 지원

2011-12-05

연합뉴스
'민족화해상'에 박종철 대북협력민간단체협회장

2011-12-12

경향신문 김정근 기자
인물과 화제 "정책 탓에 북한 못 도와도
민간부문 물꼬는 터놓아야"

2012-02-20

쿠키뉴스
(재)새누리좋은사람들, 2월 23일 송실대 한경직기념관서
北 어린이 돕기 자선음악회

2012-06-19

뉴스미션 이동희 기자
올해 여름 뜻깊게 보내려면, 역사탐방 비전트립 '강추'
(재)새누리좋은사람들,
접경지역 따라 백두산 넘는 5천리 대장정 기획

2012-09-04

TV조선 신은서 기자
中, 조선족 끌어안고 한국 거리두기

2013-05-14

CBS TV보도부 고석표 기자
(재)새누리좋은사람들, 한반도 최북단 비전트립

2013-06-07

뉴스미션 한연희 기자
북한 '남북 회담' 제의...교계 "진정성 있는 논의 기대"

2013-12-02

환경일보 권소망 기자
새누리좋은사람들, 필리핀 봉사 떠나
11월29일~12월7일 국제와이즈멘 함께 해

2014-01-07

환경일보 권소망 기자
새해맞이 역사의식 고취, 한길비전트립 시작
새누리좋은사람들 백두산 및 북②중 역사현장 탐방현재
11일까지 1차 팀 진행...여름캠프 접수 중

2014-01-22

서울신문 이범수 기자
"육로 통해 백두산 갈 수 있길 기대합니다"
[유라시아 루트를 가다] 현지 관광객 반응

2014-04-15

굿티비뉴스 한연희 기자
새누리좋은사람들
"드레스덴 선언에 따라 5.24 조치 해제 해야"

2. 2014 재무현황

회계감사보고서

감사 보고서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이사회 귀하

본 감사는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정관 26조 에 의해 2항에 의해 사무처에서 제출한 2014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운영성과표 및 수지결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상기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의 2014년 12월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2014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의 회계기간의 수입과 지출의 내용을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의 정관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비영리 기관의 회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문제없이 작성되었고 기타 중요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니다.

2015년 2월 12일

감 사 이 천 화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감사보고서일 이후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기부금 모집과 지출명세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재무상태표

과목	2014년 결산	2013년 결산
	금액(원)	금액(원)
자산		
유동자산	445,306,699	78,017,739
당좌자산	359,033,929	69,557,739
재고자산	86,272,770	8,460,000
비유동자산	272,134,659	272,134,659
유형자산	272,134,659	272,134,659
자산총계	717,441,358	350,152,398
부채		
유동부채	2,558,944	15,674,694
비유동부채	154,700,000	140,000,000
부채총계	157,258,944	155,674,694
순자산		
기본재산	300,000,000	300,000,000
잉여금	260,182,414	-105,522,296
잉여차액	260,182,414	-105,522,296
이월잉여금(부족액)	-105,522,296	-20,122,282
당기차액	365,704,710	-85,400,014
순자산총계	560,182,414	194,477,704
부채와순자산총계	717,441,358	350,152,398

운영성과표

과목	2014년 결산	2013년 결산
	금액(원)	금액(원)
사업수익	795,563,894	713,272,176
후원금	229,982,537	105,481,766
북한사업	351,770,000	2,730,000
해외사업	112,440,104	420,442,059
중국사업	75,500,000	228,569,695
코이카사업	0	75,399,262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0	28,963,629
지방자치단체사업	0	42,016,661
네팔의료사업	25,447,284	22,410,276
기타사업(긴급구호, 지역조사)	11,492,820	23,082,536
국내사업	2,178,500	0
기타수입	99,192,753	184,618,351
잡수입	4,556,477	49,427,271
현물후원	94,636,276	135,191,080
사업비용	429,859,184	798,672,190
코이카인턴사업비	22,696,793	0
국내사업	2,267,480	0
북한사업	1,647,660	800,000
해외사업	216,262,876	335,791,907
중국사업	153,040,664	163,484,210
코이카사업	0	75,550,365
기타	12,384,662	9,096,08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업	0	43,275,952
지방자치단체사업	2,979,990	44,385,300
네팔의료사업	47,857,560	0
간접사업비	186,984,375	
운영행정비	167,628,776	462,080,283
홍보비	2,532,093	8,727,645
현물지원	16,823,506	271,098,934
당기 순자산의 증(감)	365,704,710	-85,400,014

3. 보고서를 만든 사람들

2014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이해관계자 보고서는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사업을 통해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만들기까지, 영국 표준협회 안정권 심사원을 비롯하여 재단직원들과 씨티-경희인턴, KOICA ODA 인턴 등이 함께 협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넓은 소통을 하는데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발행인 / 이성희

편집인 / 박현석

총기획 / 신유리

발행일 / 2015년 2월 23일

편 집 / 백성호

디자인 / 김영주, 박은영

보 조 / 고아름, 김상민

지 원 / 서울시 NPO지원센터

발행처 /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4. 나눔플러스 • 독자설문지

좋은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비롯한 낙후지역에 구호활동과 개발지원등을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나아가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은 후원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인도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후원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이웃에게 생명과 희망을 불어 넣어주게 하는 '희망'입니다.

'좋은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새 누리)'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좋은사람들'이 되어주세요. 아낌없는 사랑과 동행을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나에게 맞는,
내가 할 수 있는 후원이 뭔지 찾아볼까요? 후원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새누리좋은사람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을 통해 사랑의 인술로 동족과 온 누리에 새 생명과 새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희망의 남과 북, 그리고 온 누리를 위해 함께해 주세요.

후원 약정서 

후원방식 정기후원 일시후원

후원희망사업 대북인도적지원 조선족장학사업
 해외사업(1대1 결연) 국내사업 및 활동

성명 _____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후원금액 5천원 1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_____ 원
(일시후원일경우 계좌이체로 1회납부, 정기후원일경우 매월 CMS 자동납부입니다)

은행명 _____ 예금주 _____ 생년월일 _____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이체일 _____ 후원자계좌번호 _____

일시후원자분들께서 보내실 후원금은 아래의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재)새누리좋은사람들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501-649499

물품후원이나 재능기부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재)새누리좋은사람들 Tel. 02) 394-0055

후원금은 소중한 곳에 투명하게 쓰입니다. 

지속가능 보고서, 어떠셨나요? 

이번 보고서에 대한 아래 설문조사를 통해 더 나은 보고서 또는 더 나은 재단이 되기 위한 소중한 의견을 나눠주시면 최선을 다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이 올바르게 성장하여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이웃을 돕는 데 함께해주세요!

1. (재) 새누리좋은사람들의 보고서 '좋은 사람들이 꿈꾸는 세상'의 내용에 만족하셨나요?(내용 충실도)

-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의견: (_____)

2. 어떤 코너가 가장 관심이 갔나요?

- ①지속가능성 ②사업보고 ③이해관계자와의 소통 ④부록 ⑤기타(_____)

이유:(_____)

3. 나중에라도 소식지를 통해 더 듣고싶은 주제나 신설되었으면 하는 코너가 있나요?

- ①사업 지역에서의 지속 현황 ②(재)새누리좋은사람들의 활동 후기 ③이사진들의 소식이나 생각을 들려주는 코너
 ④일상에서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관련한 에세이 ⑤기타(_____)

4. 보고서 또는 저희 재단에 관련하여 자유로운 건의사항 또는 의견 부탁드립니다!

(_____)

* 답변해주신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뽕송한 등산 양말을 보내드립니다.

이름: _____ 연락처(휴대폰 번호): _____ 연령대: _____

개인정보 수집, 활용동의서

본 기관은 상기 개인 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하며, 후원금 결제, 회원관리, 이벤트 안내 및 후원소개 활동, 후원사실 확인을 위한 기록 보존 등을 위한 자료 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동 동의

*만 14세 미만 후원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필요함

법정대리인 성명 _____ (인) 법정대리인 연락처 _____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_____

201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이름 _____ (인)

보내는 사람

□□□□-□□□□



재단 새누리좋은사람들
법인 NEW WORLD NICE PEOPLE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41 리첸시아용산 A동 235호
(재)새누리좋은사람들 앞

□□□□-□□□□

광복과 분단의 70주년,
국경에서 품는 통일의 꿈

한길 비전트립

‘한길’이란 본 재단의故장기천 운영위원장의 호이며 ‘큰 길, 하나의 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일정 | 5박6일~7박8일 매주 진행 (15명 이상 단독스케줄 가능)

대상 | 민족 · 역사 · 통일에 관심이 있는 초 · 중 · 고 · 대학생 및 성인

문의 | 전 화 02 - 394 - 0055
이 메 일 nwnp@nwnp.kr
홈페이지 www.nwnp.kr



재단 새누리좋은사람들
법인 NEW WORLD NICE PEOPLE

오천리길 북강도길 어디로 갈까요?

북중접경지역 5천리길 탐방, 역사의 발자취와 통일의 희망을 찾다.

1. 오천리길 코스

심양 - 단동 - 용정
- 백두산 - 용정

심양



단동



단동은 북한의 신의주와 마주하여 가슴을 아픔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중국 땅에 남아 있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2. 북간도길 코스

하얼빈 - 해림 - 목단강 - 영안 - 이도백하
- 백두산 - 용정 - 연길 - 도문 - 훈춘방천

하얼빈

해림

목단강

영안

동화

이도백하

연길 도문

훈춘
방천

송강하

용정

백두산

장백

환인

집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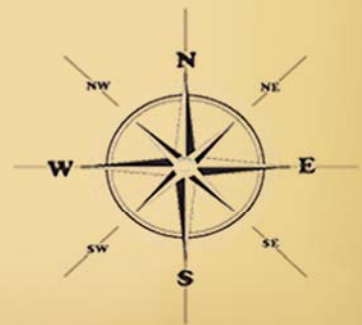
집안 - 송강하 - 장백
- 도문 - 훈춘, 방천

훈춘 방천은 북·중·러 삼국이 만나고, 1920년 경신대참변이 일어난 곳이다. 두만강이 동해로 흘러나가는 이곳에서 오천리길과 북간도길의 여정이 마무리 된다.

용정은 윤동주 시인의 출생지로 민족의 정신과 투쟁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집안은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한 때 만주를 호령했던 광개토태왕의 비문과 장수왕릉, 국내성터, 환도산성, 오회분오호묘 등이 있어 고구려 최전성기의 영광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또한 북한 자강도 만포시와 압록강 중류를 조망할 수 있다.



간도를 사이에 두고

역사의

길을 되새겨



재단법인 새누리좋은사람들 홍보대사 정영숙

안녕하세요. 텔런트 정영숙입니다.
한길비전트립은 선교와 역사, 민족, 통일에 대해
직접 보고 들으며 비전을 가슴에 품는 여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분단된 이 땅을 살고있는 한국인으로서 어두운
북녘의 땅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역사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했던 선조들의 발자취를 밟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의 현장으로! 통일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족 문화교류

참가자들은 조선족 장학생들과 함께
민족의 정기가 서려있는 백두산을 등반하며
하나의 뿌리, 하나의 얼을 공감합니다.



조선족 무료의료봉사

조선족 마을을 중심으로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의료봉사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의료진료와 의약품지원을 합니다.



한길장학지원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학업에 열정이 있는
조선족 학생들에게 매년 2회씩
학비와 기숙사비를 지원합니다.

장학생들의 명문대학 진학을 돕고
그들이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좋은사람들이
꿈꾸는
세상

영양교육사업
10월 10일
10월 10일



새누리좋은사람들
NEW WORLD NICE PEOPLE

140-111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 341 리첸시아용산 A동 235호
Tel. 02-394-0055 Fax. 02-394-0015
www.nwnp.kr